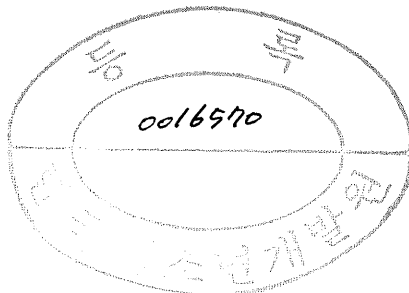


연구보고 03-R 29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결정 관련요인 비교 분석

연구책임자 : 김선미(국립순천대학교)

공동연구자 : 황 은(한국가족상담연구소)



한국청소년개발원

본 보고서는 미국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에 속한 기관인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Impacts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서 the United State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Project # HRD-0120458)의 지원을 받아 Director Peggy Maszaros의 주관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단순 비교 기술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II. 연구의 내용	9
III. 연구방법	13
IV. 연구결과 및 논의	19
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21
1) 한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21
2) 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22
2. 한·미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비교	23
1) 컴퓨터 사용장소	23
2) 컴퓨터 사용목적	26
3)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32
4)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36
5) 진로결정 조건	37
6) 진로결정 의논 대상자	42
7)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지지 정도	45
8)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개입 정도	46
3. 한·미 청소년의 성별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비교 분석	48
1)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장소	48
2)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장소	52
3)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	56
4)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	62
5)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68
6)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72
7)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76

8)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76
9) 여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조건	77
10) 남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조건	82
11) 여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 대상	86
12) 남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 대상	90
13) 여자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지지	93
14) 남자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지지	94
15) 여자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개입	96
16) 남자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개입	98
 V. 요약 및 결론	103
1. 연구결과 요약	105
2. 결론 및 제언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5
-한국 청소년 대상 설문지	117
-미국 청소년 대상 설문지	127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국제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변화의 추세에 어떻게하면 현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원하며 우리 사회와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사회의 내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잣대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당면과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의 급속한 변화의 급류에 표류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세계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비전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사항이라 할 것이다.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은 정보사회의 발전과 긴밀히 맞물려 있으면서 양자간의 발전을 상호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문제 해결과 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 탐색 및 처리, 창출 등과 같은 정보활용 능력은 정보화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 핵심 능력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정보활용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되기위한 요건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능력은 컴퓨터의 사용과 활용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며, 컴퓨터 활용의 확산은 청소년들의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은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일 뿐 아니라 각자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담당하고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성향과 선호하는 조건, 그리고 직업결정의 관련 요인 등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우리사회 변화의 한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의미있는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 경향을 선진국의 청소년 경우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일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현황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그 현주소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상황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특히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이해하는 일은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직업 선택에 대한 국가적 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결정 주요 요인이 외국의 청소년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선택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청소년 개인들의 진로 결정의 과정에 여러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접하는 장소와 컴퓨터 사용 목적, 컴퓨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게 될 것이며, 청소년의

진로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직업결정을 위해 고려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신의 진로를 의논하는 대상,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지지정도 및 개입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미국 청소년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에 대한 국제 비교를 시도하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실태 및 청소년의 진로선택 경향을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의 내용

II. 연구내용

정보활용 능력은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사용 인구의 증가,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정보 소양인증제 도입, 컴퓨터 교육의 강화, 정보탐색능력 경진대회 개최 등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컴퓨터 활용의 소양을 갖추고 활용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보활용 능력이란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 수집, 활용하며, 이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보고, 정보 문해, 정보 소통, 정보활용 등에 관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가 정보의 중심 매체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의 증가가 정보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활용 능력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 처리,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컴퓨터 활용을 통한 정보 탐색 및 수집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목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이 정보활용 능력 발전과 연결지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직업 및 종사자들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컴퓨터 관련 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컴퓨터 기술에 대하여 자신들이 종사하고 싶은 분야로 긍정

적 혹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향후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과도 관련이 깊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전망하게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청소년들의 컴퓨터 관련 직업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청소년의 컴퓨터 직종에 대한 태도와 향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선행되어 이해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실태 및 컴퓨터 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와 사용 빈도를 알기 위하여 집, 친척집, 친구집, 학교, 공공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직장 등의 장소에서 하루 또는 일 주에 어느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메일, 게임, 문서작성, 그래픽, 영화나 음악의 다운로드 등, 여러 가지 이용 목적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의 묻고 사용목적의 순위를 알아보았다. 셋째,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 직종 종사자들의 성격, 성별, 교과목 적성, 근면성, 능력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세가지의 조사 내용들은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를 비교하여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임금, 근무시간 및 여건, 직업의 사회봉사성, 사회

적 교류, 개인적 자유, 전문성, 혜택 등에 대하여 무엇이 직업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 순위를 알아보았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때 상담하는 의논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 다른 가족 구성원, 선생님, 친구, 상담사, 애인, 직장동료나 상관 등에 대하여 의논대상자의 순위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 결정의 조건과 의논대상자의 순위는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 의사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부모들은 어느정도 자신들의 선택을 지지할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청소년의 어머니, 아버지의 지지정도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에게 조사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모들에게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어느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를 각각 별도로 조사였다. 또한, 부모가 자신들의 진로선택에 제한을 둔다고 인식하는지, 직업을 결정할 때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부모의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결정에 관한 모든 조사 내용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지 구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향과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들 및 관련 변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미국에서 설문지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문내용의 범위 설정과 구체성,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객관성을 지니고 합의에 이른 설문지를 고안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한국에서 실시하게 될 때, 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항의 추가 삭제 등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각각 실시하게 된다. 첫째, 미국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활용 목적, 장소, 시기, 컴퓨터 종사자에 대한 인식 등과 자신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의 영향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국 청소년에게 실시한 설문지에 포함된 응답

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 중에서 한국 청소년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인종, 결혼 상태 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번역한 설문지를 만들고 이에 대하여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지 구성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 만 15-20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으로 하였다. 첫째, 미국 청소년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15-20세의 청소년이 대상이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모두 436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여자청소년 318명, 남자청소년 118명으로 여자청소년이 더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둘째,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1-2학년을 중심으로 모두 400명에게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의 서울대, 명지대, 중앙대 학생 200명과 중소도시인 순천지역 청소년 20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의 강의 시간에 담당 강사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370명의 응답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하게 될 설문지는 미국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Impacts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서 the

United State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Project # HRD-0120458)의 지원을 받아 Director Peggy Maszaros의 주관으로 2003년도에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 및 내용은 컴퓨터의 활용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부록의 설문지 참조).

- (1) 컴퓨터 사용장소
- (2) 컴퓨터 사용목적
- (3)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 (4)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 (5) 진로결정 조건
- (6) 진로결정 의논 대상
- (7)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지지 정도
- (8)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개입 정도
- (9)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IV. 연구결과

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2. 한·미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비교
3. 한·미 청소년의 성별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비교 분석

IV. 연구결과

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1) 한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한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I-1>에서와 같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2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은 15세에서 18세 사이였다.

<표 I-1>한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변인		N(370)	%
성	여자	235	63.5
	남자	135	36.5
연령	15-18세	370	100
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160	43.2
	전문대졸업	20	5.4
	대학졸업	104	28.1
	석사졸업	16	4.3
	박사졸업	8	2.2
	*전문직 자격사	5	1.4
	기타	41	11.1
	잘 모르겠다	12	3.2
	무응답	4	1.1
	고등학교 졸업	225	60.8
모의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11	3.0
	대학교 졸업	57	15.4
	석사졸업	6	1.6
	박사졸업	2	0.5
	*전문직 자격사	1	0.3
	기타	52	14.1
	잘 모르겠다	13	3.5
	무응답	3	0.8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변호사를 의미함

응답자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3.2%가 고졸, 대학 졸업이 28.1%로 두 번째이며, 그밖에 전문대 졸업이 5.4%, 석사 및 박사학위

가 각각 4.3%, 2.2%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60.8%가 고졸이었으며, 전문대 졸업이 3%, 대학졸업이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은 <표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보면, <표I-2>과 같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3배정도 많았으며, 연령은 만15세에서 18세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8.5%,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7.8%인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I-2>미국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변인		N(436명)	%
성	여자	318	72.9
	남자	118	27.1
연령	만15-18세	436	100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168	38.5
	전문대졸	40	9.2
	대학졸	67	15.4
	석사	32	7.3
	박사	8	1.8
	전문자격사*	10	2.3
	기타	40	9.2
	잘 모름	62	14.2
	해당되지 않음	8	1.8
	무응답	1	0.2
	고등학교졸업	165	37.8
어머니의 교육수준	전문대졸	65	14.9
	대학졸	75	17.3
	석사	44	17.2
	박사	5	1.1
	전문자격사*	7	1.6
	기타	27	6.2
	잘 모름	43	9.9
	해당되지 않음	3	0.7
	무응답	2	0.5

*는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변호사를 의미함.

2. 한·미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비교

1) 한·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장소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를 비교한 결과, <표 II-1>과 같이 한국 청소년은 집, 학교, 공공도서관, 친구집, 친척집, 직장, 문화회관 순으로, 미국 청소년은 집, 학교, 친구집, 직장, 친척집,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나타났다. 각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빈도 별 국가간 차이에서는 친척집, 친구집, 학교, 공공도서관, 직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집과 학교에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직장이나 친구집 보다는 공공도서관을 인터넷 사용장소로 더욱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빈도별 국가차를 보면,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보다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의 사용 빈도가 더 많고, 친척집, 친구집, 직장에서의 사용빈도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과 문화회관에서의 사용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빈도별 국가차이를 살펴보면, 친척집에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73.0%와 44.1%,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0.8%와 24.7%,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6%와 10.6%,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9%와 9.0%,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3%와 5.5%,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3%와 6.0%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친척집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집의 경우는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을 전

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45.4%와 28.6%,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4.6%와 31.9%,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0.4%와 16.3%,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9%와 7.9%,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6.3%와 2.0%,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2.0%와 9.1%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친구집에서 인터넷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에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4.0%와 4.8%,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2.7%와 32.2%,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4.1%와 21.9%,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2.9%와 21.9%, 하루 1회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9.3%와 8.9%,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7.0%와 10.3%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43.2%와 50.8%,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7.4%와 32.0%,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2.4%와 7.1%, 주 2회 사용하는 경우가 12.7%와 3.5%,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2%와 1.2%,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2.3%와 5.3%로 대체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에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90.9%와 61.9%,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9%와 2.5%,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0%와 4.4%,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3%와 4.6%,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3%와 3.2%,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2.4%와 23.3%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직장에서 인터넷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한국의 청소년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시간제 일을 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집, 문화회관 장소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청소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4.3%와 5.5%,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5%와 3.0%,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4.1%와 3.2%,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3.6%와 17.2%,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표Ⅱ-1>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장소

	국가	순위	전혀없음	월 1회	주 1회	주2회 이상	하루 1회	하루 2회이상	χ^2
집	한국	1	16 (4.3)	13 (3.5)	15 (4.1)	50 (13.6)	76 (20.7)	198 (53.8)	6.39
	미국	1	24 (5.5)	13 (3.0)	14 (3.2)	75 (17.2)	66 (15.2)	243 (55.9)	
친척 집	한국	5	249 (73.0)	71 (20.8)	9 (2.6)	3 (0.9)	8 (2.3)	1 (0.3)	92.19 **
	미국	5	191 (44.1)	107 (24.7)	46 (0.6)	39 (9.0)	24 (5.5)	26 (6.0)	
친구 집	한국	4	158 (45.5)	120 (34.6)	36 (10.4)	17 (4.9)	9 (6.3)	7 (2.0)	44.96 **
	미국	3	123 (28.6)	137 (31.9)	70 (16.3)	34 (7.9)	27 (2.0)	39 (9.1)	
학교	한국	2	14 (4.0)	45 (12.7)	85 (24.1)	116 (32.9)	33 (9.3)	60 (17.0)	28.85 **
	미국	2	7 (4.8)	47 (32.2)	32 (21.9)	32 (21.9)	13 (8.9)	15 (10.3)	
문화회관	한국	7	285 (83.6)	26 (7.6)	15 (4.4)	9 (2.6)	2 (0.6)	4 (1.2)	6.37
	미국	7	349 (81.0)	34 (7.9)	14 (3.2)	13 (3.0)	5 (1.2)	16 (3.7)	
공공도서관	한국	3	150 (43.2)	95 (27.4)	43 (12.4)	44 (12.7)	7 (1.2)	8 (2.3)	36.41 **
	미국	6	221 (50.9)	139 (32.0)	31 (7.1)	15 (3.5)	5 (1.2)	23 (5.3)	
직장	한국	6	298 (90.9)	3 (0.9)	10 (3.0)	11 (3.3)	1 (0.3)	8 (2.4)	90.17 **
	미국	4	268 (61.9)	11 (2.5)	19 (4.4)	20 (4.6)	14 (3.2)	101 (23.3)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20.7%와 15.2%,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53.8%와 55.9%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회관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83.6%와 81.0%,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7.6%와 7.9%,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4.4%와 3.2%,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2.6%와 3.0%,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6%와 1.2%,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2%와 3.7%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를 살펴본 결과,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가 학교와 집, 도서관에 더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좀더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과 활동범위가 같은 연령대의 미국 청소년에 비하여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을 비교한 결과, <표 II-2>과 같이, 한국 청소년의 경우 이메일, 문서작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인터넷 메신저, 음악 다운로드/MP3,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게임,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채팅, 웹기반 TV 프로그램, 단체 이메일 리스트,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이메일이며, 그 다음이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문서작성,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게임,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인터넷 메신저, 음악 다운로드

/MP3,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웹기반 TV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각 인터넷 사용목적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보다,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문서작성, 인터넷 쇼핑, 웹기반 TV프로그램, 음악 다운로드/MP3,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웹 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사용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사용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67.4%와 83.5%, ‘때때로 사용한다’가 31.0%와 12.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1.6%와 3.7%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이메일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메신저 사용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64.6%와 61.6%, ‘때때로 사용한다’가 28.6%와 17.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6.8%와 21.7%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18.0%와 56.3%, ‘때때로 사용한다’가 44.6%와 29.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37.4%와 14.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31.1%와 55.8%, ‘때때로 사용한다’가 62.8%와 39.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6.1%와 4.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채팅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14.4%와 13.9%, '때때로 사용한다'가 38.0%와 19.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7.6%와 56.1%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채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체 이메일 리스트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5.0%와 13.6%, '때때로 사용한다'가 37.5%와 22.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57.5%와 63.8%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단체 이메일 리스트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서작성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31.7%와 64.0%, '때때로 사용한다'가 65.8%와 30.7%,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5%와 5.3%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적었지만, 사용하는 경우,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스프레드 시트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3.1%와 20.6%, '때때로 사용한다'가 33.6%와 48.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63.3%와 30.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스프레드 시트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1.7%와 17.6%, '때때로 사용한다'가 16.7%와 43.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81.6%와 38.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훨씬 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18.1%와 13.9%, '때때로 사용한다'가 66.6%

와 40.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15.3%와 45.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 쇼핑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웹기반 TV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각각 6.7%와 3.0%, ‘때때로 사용한다’가 49.0%와 9.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4.3%와 99.0%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웹기반 TV프로그램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음악 다운로드/MP3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42.1%와 40.7%, ‘때때로 사용한다’가 50.5%와 29.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7.4%와 29.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음악 다운로드/MP3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 보기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7.9%와 13.8%, ‘때때로 사용한다’가 59.6%와 20.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2.5%와 65.3%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 보기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게임과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게임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8.2%와 34.3%, ‘때때로 사용한다’가 50.3%와 48.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1.5%와 16.9%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9.8%와 31.6%, ‘때때로 사용한다’가 49.7%와 50.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0.4%와 18.4%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에 비슷한 사용빈도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목적은 미국청소년에 비하여 이메일, 메신저, 채팅과 같은 통신활동과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다운로드, 쇼핑 등과 같은 오락과 취미활동에 더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적 목적이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프레드 쉬트 사용 등과 같은 전문활동이나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빈도는 더 적은 경향을 보이고

<표II-2>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

사용목적	국가	순위	전혀없음	때때로	일상으로	χ^2
이메일	한국	1	6 (1.6)	114 (31.0)	248 (67.4)	40.87**
	미국	1	16 (3.7)	55 (12.8)	359 (83.5)	
인터넷 메신저	한국	4	25 (6.8)	105 (28.6)	237 (64.6)	41.23**
	미국	8	93 (21.7)	74 (17.2)	262 (61.1)	
웹사이트/ 그래픽 관련 활동	한국	11	135 (37.4)	161 (18.0)	65 (18.0)	128.96** *
	미국	5	61 (14.2)	127 (29.5)	242 (56.3)	
게임	한국	9	78 (21.5)	182 (50.3)	102 (28.2)	4.63
	미국	6	73 (16.9)	211 (48.8)	148 (34.3)	
인터넷 서핑 (교육적 목적)	한국	3	22 (6.1)	228 (62.8)	113 (31.1)	49.14**
	미국	2	21 (4.9)	170 (39.4)	241 (55.8)	
인터넷 서핑 (오락적 목적)	한국	6	28 (7.7)	170 (46.7)	166 (45.6)	19.20**
	미국	4	40 (9.3)	136 (31.6)	255 (59.2)	
채팅	한국	13	172 (47.6)	137 (38.0)	52 (14.4)	6.51*
	미국	13	242 (56.1)	129 (19.9)	60 (13.9)	
단체 이메일 리스트	한국	14	207 (57.5)	135 (37.5)	18 (5.0)	31.14**
	미국	14	272 (63.8)	96 (22.5)	58 (13.6)	
문서작성	한국	2	9 (2.5)	239 (65.8)	115 (31.7)	97.88**
	미국	3	23 (5.3)	133 (30.7)	277 (64.0)	

<표II-2>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목적 (계속)

사용목적	국가	순위	전혀없음	때때로	일상으로	χ^2
스프레드 쉬트	한국	15	229 (63.3)	121 (33.6)	11 (3.1)	103.34**
	미국	10	134 (30.9)	210 (48.5)	89 (20.6)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	16	293 (81.6)	60 (16.7)	6 (1.7)	156.46
	미국	11	166 (38.5)	189 (43.9)	76 (17.6)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한국	8	74 (20.4)	180 (49.7)	108 (29.8)	.64
	미국	7	79 (18.4)	215 (50.0)	136 (31.6)	
인터넷 쇼핑	한국	7	56 (15.3)	243 (66.6)	66 (18.1)	84.40**
	미국	12	197 (45.5)	176 (40.6)	60 (13.9)	
웹기반 TV 프로그램	한국	12	158 (44.3)	175 (49.0)	24 (6.7)	175.77**
	미국	16	380 (88.0)	39 (9.0)	13 (3.0)	
음악 다운로드/MP3	한국	5	27 (7.4)	185 (50.5)	154 (42.1)	74.16**
	미국	9	130 (29.9)	128 (29.4)	177 (40.7)	
영화 다운로드/영화보 기	한국	10	82 (22.5)	217 (59.6)	65 (17.9)	158.17**
	미국	15	284 (65.3)	91 (20.9)	60 (13.8)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있다. 즉, 한국 청소년에게서 컴퓨터는 일을 위한 도구로보다는 오락과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스프레드 쉬트, 및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메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 한국 청소년 응답자에 비해 미국 청소년 응답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어 직장활동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청소년이 이러한 용도로 더 적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오락이나 여가활용을 위해 컴퓨터를 더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전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활동에서 한국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한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에서의 오락적인 특성으로 언급하기 전에 미국 청소년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스프레드 쉬트,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을 하게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좀더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미 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이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표II-3>과 같이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은 대체로 여자이기보다는 남자이며, 괴팍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은 적었지만, 그 외 인성이나 사회성 그리고 지적 측면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관련 종사가 '괴팍한 사람'인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42.2%와 47.7%, '그렇지 않다'가 52.3%와 37.0%, '그렇다'가 4.4%와 11.1%, '매우 그렇다'가 1.1%와 4.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괴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남자이다'의 문항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6.5%와 20.2%, '그렇지 않다'가 24.7%와 27.8%, '그렇다'가 63.1%와 41.8%, '매우 그렇다'가 5.7%와 10.1%로 한국 청

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대개 남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여자이다’의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2.0%와 21.7%, ‘그렇지 않다’가 82.2%와 50.8%, ‘그렇다’가 5.2%와 24.9%, ‘매우 그렇다’가 0.5%와 2.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여자로 더 적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은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대개 남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흥미로운 사람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7.4%와 3.9%, ‘그렇지 않다’가 36.5%와 15.7%, ‘그렇다’가 52.0%와 66.1%, ‘매우 그렇다’가 4.1%와 14.3%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흥미롭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수학을 잘한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4.6%와 4.1%, ‘그렇지 않다’가 36.2%와 19.1%, ‘그렇다’가 52.9%와 49.4%, ‘매우 그렇다’가 6.3%와 27.4%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모두 수학과 컴퓨터전공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한국 청소년이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수학과 더 적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과학을 잘한다’라는 항목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4.9%와 5.1%, ‘그렇지 않다’가 43.3%와 23.0%, ‘그렇다’가 45.8%와 50.3%, ‘매우 그렇다’가 6.0%와 21.6%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모두 컴퓨터 전공자를 과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과학을 잘하는 사람과

더 적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어를 잘한다’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6.0%와 7.4%, ‘그렇지 않다’가 51.9%와 40.9%, ‘그렇다’가 38.3%와 42.5%, ‘매우 그렇다’가 3.8%와 9.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영어실력과 더 적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5%와 29.4%, ‘그렇지 않다’가 62.9%와 49.3%, ‘그렇다’가 17.2%와 17.1%, ‘매우 그렇다’가 1.4%와 4.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를 사람과의 교류와 사회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에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5%와 3.2%, ‘그렇지 않다’가 29.0%와 18.8%, ‘그렇다’가 64.4%와 53.2%, ‘매우 그렇다’가 4.1%와 24.8%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똑똑하다’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와 3.0%, ‘그렇지 않다’가 29.0%와 9.2%, ‘그렇다’가 64.5%와 53.8%, ‘매우 그렇다’가 4.9%와 34.0%로 미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더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II-3>한·미 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국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괴팍한 사람이다	한국	155 (42.2)	192 (52.3)	16 (4.4)	4 (1.1)	29.93**
	미국	206 (47.7)	160 (37.0)	48 (11.1)	18 (4.2)	
대체로 남자이다	한국	24 (6.5)	91 (24.7)	233 (63.1)	21 (5.7)	50.14**
	미국	88 (20.2)	121 (27.8)	182 (41.8)	44 (10.1)	
대체로 여자이다	한국	44 (12.0)	301 (82.2)	19 (5.2)	2 (0.5)	94.36**
	미국	94 (21.7)	220 (50.8)	108 (24.9)	11 (2.5)	
흥미로운 사람이다	한국	27 (7.4)	134 (36.5)	191 (52.0)	15 (4.1)	66.45**
	미국	17 (3.9)	68 (15.7)	286 (66.1)	62 (14.3)	
수학을 잘한다	한국	17 (4.6)	133 (36.2)	194 (52.9)	23 (6.3)	72.34**
	미국	18 (4.1)	83 (19.1)	215 (49.4)	119 (27.4)	
과학을 잘한다	한국	18 (4.9)	159 (43.3)	168 (45.8)	22 (6.0)	59.92**
	미국	22 (5.1)	100 (23.0)	219 (50.3)	94 (21.6)	
영어를 잘한다	한국	22 (6.0)	190 (51.9)	140 (38.3)	14 (3.8)	15.30**
	미국	32 (7.4)	177 (40.9)	184 (42.5)	40 (9.2)	
사람과 교류/ 사회성이 부족하다	한국	68 (18.5)	231 (62.9)	63 (17.2)	5 (1.4)	21.67**
	미국	127 (29.4)	213 (49.3)	74 (17.1)	18 (4.2)	
열심히 일한다	한국	9 (2.5)	106 (29.0)	235 (64.4)	15 (4.1)	68.71**
	미국	14 (3.2)	81 (18.8)	230 (53.2)	107 (24.8)	
똑똑하다	한국	6 (1.6)	106 (29.0)	236 (64.5)	18 (4.9)	129.25**
	미국	13 (3.0)	40 (9.2)	234 (53.8)	148 (34.0)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이상에서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대체로 여자이기보다는 남자이며, 피박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은 적었지만, 그외 인성이나 사회성 그리고 지적 측면에서는 미국 청소년에 비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났다.

4)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기를 비교한 결과, <표 II-4>와 같이,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더 늦은 시기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 각각 유치원 시절 또는 초등학교 이전이 4.1%와 43.3%, 초등학교 시절이 51.9%와 39.4%, 중학교 시절이 37.0%와 7.1%, 고등학교 시절이 6.5%와 2.5%, 대학시절이 0.5%와 7.6%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좀 더 늦은 시기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터넷에 대한 환경적 자극의 시작이 더 늦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청소년들은 매우 어렸을 때 즉, 유치원 시절부터 인터넷을 많은 수가 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중학교 시기도 빠른 발달이 일어나면서 성격구조와 인지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로 인터넷이 이들의 환경에서 밀접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늦은 시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유치원기에 보다 일찍 컴퓨터 사용을 시작하는 미국 청소년에 비해서 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I-4>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국 가	초등학 교 이전	초등학 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 교 시절	대학 시절	χ^2
처음 인터넷 사용 시기	한 국	15 (4.1)	191 (51.9)	136 (37.0)	24 (6.5)	2 (0.5)	243.06**
	미 국	188 (43.3)	171 (39.4)	31 (7.1)	11 (2.5)	33 (7.6)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5)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 조건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을 비교한 결과, <표II-5>와 같이 나타났다. 순위별로 보면, 한국 청소년은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융통성있는 근무 시간, 전문가로서의 대우,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높은 수준의 임금,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승진 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은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높은 수준의 임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승진기회,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높은 임금수준이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 대우와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조건에 대한 빈도별 두 나라 청소년들의 차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들이 직업결정에 있어서 중요시여기는 항목들에 대해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순서로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은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전문가로서의 대우,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높은 수준의 임금,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승진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의 순으로 95.4%, 95.3%, 94.6%, 91.3%, 90.7%, 89.9%, 89.4%, 86.7%, 71.3%, 68.3%, 5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은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높은 수준의 임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승진기회,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의 순으로 98.2%, 97.3%, 96.8%, 96.8%, 95.2%, 94.0%, 93.5%, 92%, 91.7%, 78.9%,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7.3%와 61.0%, ‘중요하다’가 61.0%와 44.7%, ‘중요하지 않다’가 28.7%와 4.6%,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0%와 1.4%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진로 결정시 중요시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임금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8.3%와 55.5%, ‘중요하다’가 61.1%와 39.7%, ‘중요하지 않다’가 9.5%와 3.9%,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1%와 0.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진로 결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더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 생활간의 균형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9.1%와 60.9%, ‘중요하다’가 65.5%와 35.9%, ‘중요하지 않다’가 4.9%와 2.3%,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5%와 0.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을 진로 결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더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기회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2.5%와 53.2%, ‘중요하다’가 58.8%와 39.9%, ‘중요하지 않다’가 26.0%와 5.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2.7%와 1.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승진기회를 진로 결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더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3.1%와 49.5%, ‘중요하다’가 66.8%와 44.0%, ‘중요하지 않다’가 9.5%와 5.3%,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5%와 1.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의 대우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9.6%와 31.1%, ‘중요하다’가 61.1%와 41.7%, ‘중요하지 않다’가 8.8%와 24.7%,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5%와 2.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작업 여건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36.7%와 60.6%, ‘중요하다’가 58.7%와 36.7%, ‘중요하지 않다’가 4.3%와 2.3%,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3%와 0.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이 모두 보다 좋은 작업 여건을 진로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미국 청소년들이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41.3%와 63.8%, ‘중요하다’가 54.3%와 33.0%, ‘중요하지 않다’가 4.1%와 2.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5%와 0.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 모두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진로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더 많았다.

유통성있는 근무 시간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30.1%와 47.2%, ‘중요하다’가 61.2%와 44.5%, ‘중요하지 않다’가 8.4%와 8.0%,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3%와 0.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유통성 있는 근무

<표II-5>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

	국가	순위	전혀 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χ^2
다른 사람 돕는 여부	한국	10	11 (3.0)	106 (28.7)	225 (61.0)	27 (7.3)	204.20**
	미국	6	6 (1.4)	20 (4.6)	195 (44.7)	215 (49.3)	
높은 수준의 임금	한국	7	4 (1.1)	35 (9.5)	225 (61.1)	104 (28.3)	62.76**
	미국	5	4 (0.9)	17 (3.9)	173 (39.7)	242 (55.5)	
일/가족 생활간의 균형	한국	3	2 (0.5)	18 (4.9)	241 (65.5)	107 (29.1)	83.25**
	미국	3	4 (0.9)	10 (2.3)	156 (35.9)	265 (60.9)	
승진기회	한국	9	10 (2.7)	96 (26.0)	217 (58.8)	46 (12.5)	167.69**
	미국	8	5 (1.2)	25 (5.8)	173 (39.9)	231 (53.2)	
사람들과 교류의 기회	한국	6	2 (0.5)	35 (9.5)	246 (66.8)	85 (23.1)	62.01**
	미국	7	5 (1.2)	23 (5.3)	191 (44.0)	215 (49.5)	
전문가 로서의 대우	한국	5	2 (0.5)	32 (8.8)	223 (61.1)	108 (29.6)	48.47**
	미국	11	11 (2.5)	107 (24.7)	181 (41.7)	135 (31.1)	
좋은 작업 여건	한국	1	1 (0.3)	16 (4.3)	216 (58.7)	135 (36.7)	46.35**
	미국	2	2 (0.5)	10 (2.3)	160 (36.7)	264 (60.6)	
개인 시간 여부	한국	2	2 (0.5)	15 (4.1)	200 (54.3)	151 (41.3)	41.59**
	미국	3	2 (0.5)	12 (2.8)	144 (33.0)	278 (63.8)	
근무시간 융통성	한국	4	1 (0.3)	31 (8.4)	226 (61.2)	111 (30.1)	25.75**
	미국	9	1 (0.2)	35 (8.0)	194 (44.5)	206 (47.2)	
직장의 각종 혜택	한국	8	2 (0.5)	47 (12.8)	233 (63.3)	86 (23.4)	169.15**
	미국	1	2 (0.5)	6 (1.4)	133 (30.5)	295 (67.7)	
고위직 전문가	한국	11	12 (3.3)	143 (38.8)	153 (41.5)	61 (16.5)	61.67**
	미국	10	9 (2.1)	83 (19.0)	178 (40.8)	166 (38.1)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무시간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3.4%와 67.7%, ‘중요하다’가 63.3%와 30.5%, ‘중요하지 않다’가 12.8%와 1.4%,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5%와 0.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진로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전문가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6.5%와 38.1%, ‘중요하다’가 41.5%와 40.8%, ‘중요하지 않다’가 38.8%와 19.0%,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3%와 2.1%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고위직 전문가로서의 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진로결정 조건을 살펴본 결과,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항목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취업상황에서 성인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임금이나 승진기회보다는 개인적인 여유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생각은 근로와 직업을 통한 자신의 발전보다는 개인적 여유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특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에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순위면에서나 빈도면에서나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사회적 역할과 의무의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인식 성향이 미국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에 대해서 양국 청소년 모두 3순위로 꼽은 것은 일뿐 아니라 가족생활과 균형있는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 대상자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자를 비교한 결과, <표II-6>과 같이, 한국 청소년은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 동료 및 상관,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청소년은 부모님, 친구,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직장동료 및 상관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부모보다 친구에 더 위존하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은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가 직장 동료 및 상관보다 더 의논상대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의논 대상자에 대한 빈도별 차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때때로 의논함’이거나 ‘항상 의논함’의 대상자가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 동료 및 상관,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의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95.7%, 92.9%, 69.6%, 61.8%, 43.8%, 28.9%,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친구, 다른 가족구성원, 애인, 선생님,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직장동료 및 상관 순으로 97.3%, 97.2%, 90.1%, 75.6%, 71.9%, 71.2%, 4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32.3%와 67.1%, ‘때때로 의논한다’가 60.6%와 31.2%,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7.1%와 2.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부모님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생님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2.7%와 11.8%, ‘때때로 의논한다’가 59.1%와 63.8%,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38.1%와 24.4%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선생님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2.7%와 15.0%, ‘때때로 의논한다’가 25.0%와 56.2%,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72.3%와 28.8%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와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II-6>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진로 결정 의논 대상자

	국가	순위	전혀 의논안함	때때로 의논함	항상 의논함	χ^2
부모님 (혹은 보호자)	한국	2	26 (7.1)	223 (60.6)	119 (32.3)	96.45**
	미국	1	12 (2.8)	131 (30.2)	291 (67.1)	
선생님	한국	4	140 (38.1)	217 (59.1)	10 (2.7)	34.18**
	미국	4	106 (24.4)	277 (63.8)	51 (11.8)	
상담사/학생 지도 교수	한국	7	266 (72.3)	92 (25.0)	10 (2.7)	155.56**
	미국	6	125 (28.8)	244 (56.2)	65 (15.0)	
친구	한국	1	16 (4.4)	205 (56.2)	144 (39.5)	87.11**
	미국	2	12 (2.8)	109 (25.1)	313 (72.1)	
애인	한국	5	204 (56.2)	112 (30.9)	47 (12.9)	111.86***
	미국	5	121 (28.1)	109 (25.3)	201 (46.6)	
다른 가족구성원	한국	3	111 (30.4)	204 (55.9)	50 (13.7)	93.15**
	미국	3	43 (9.9)	217 (50.1)	173 (40.0)	
직장동료 및 상관	한국	6	254 (71.1)	86 (24.1)	17 (4.8)	25.83**
	미국	7	239 (55.5)	136 (31.6)	56 (13.0)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친구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39.5%와 72.1%, '때때로 의논한다'가 56.2%와 25.1%,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4.4%와 2.8%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친구와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애인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2.9%와 46.6%, '때때로 의논한다'가 30.9%와 25.3%,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56.2%와 28.1%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애인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3.7%와 40.0%, '때때로 의논한다'가 55.9%와 50.1%,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30.4%와 9.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다른 가족구성원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 동료 및 상관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4.8%와 13.0%, '때때로 의논한다'가 24.1%와 31.6%,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71.1%와 55.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직장동료 및 상관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자를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이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를 진로 결정 의논 대상으로 가장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전문적인 자원이 한국의 경우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진로 결정시 모든 대상자에 걸쳐 의논을 더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주목할만 한데,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과 비교할 때 진로 결정시 누군가를 의논할 상대로 여기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거나 의논이 아닌 부모나 선생님의 결정을 따르는 성향이 더 강하고, 논의와 대화의 기회를 더 적게 갖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7)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미 부모의 지지 정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지지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II-7>과 같이,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을 지원할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였을 때, 어머니의 경우, 한국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각각 51.2%와 71.2%, ‘인정은 할것이다’가 41.4%와 16.1%,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가 3.8%와 9.8%,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3.6%와 2.9%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어머니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45.0%와 61.7%, ‘인정은 할것이다’가 42.8%와 19.8%, ‘상관하지

<표II-7>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지지정도

부모 기대와 다른 진로 선택 경우	국가	인정/적 극 도움	인정함	상관않함	인정않함	χ^2
어머니	한국	187 (51.2)	151 (41.4)	14 (3.8)	13 (3.6)	67.50
	미국	297 (71.2)	67 (16.1)	41 (9.8)	12 (2.9)	
아버지	한국	162 (45.0)	154 (42.8)	23 (6.4)	21 (5.8)	51.41**
	미국	246 (61.7)	79 (19.8)	53 (13.3)	21 (5.3)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않을 것이다'가 6.4%와 13.3%,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5.8%와 5.3%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아버지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진로선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 자녀의 진로에 대한 한·미 부모의 개입 정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개입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II-8>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자신의 직업이 어머니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1.9%와 70.8%, '그렇다'가 29.6%와 18.5%, '대체로 그렇다'가 29.3%와 5.9%,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8.2%와 1.2%, '그렇지 않다'가 7.9%와 2.4%,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와 1.2%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이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직업을 갖는 것이 아버지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1.2%와 65.6%, '그렇다'가 20.8%와 28.8%, '대체로 그렇다'가 5.7%와 28.3%,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9.9%와 2.2%, '그렇지 않다'가 9.1%와 3.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와 2.5%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이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을 둔다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3.8%와

1.8%, ‘그렇다’가 7.9%와 2.3%, ‘대체로 그렇다’가 16.8%와 5.7%,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6.8%와 6.9%, ‘그렇지 않다’가 23.8%와 26.7%,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9%와 56.6%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부모가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제한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4%와 5.1%, ‘그렇다’가 11.9%와 9.2%, ‘대체로 그렇다’가 22.7%와 13.3%,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8.6%와 10.3%, ‘그렇지 않다’가 28.4%와 19.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9%와 42.8%로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대학전공 선택시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8>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개입정도

	국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어머니에게 중요	한국	11 (3.0)	29 (7.9)	30 (8.2)	107 (29.3)	108 (29.6)	80 (21.9)	207.93
	미국	5 (1.2)	10 (2.4)	5 (1.2)	25 (5.9)	78 (18.5)	298 (70.8)	
아버지에게 중요	한국	10 (2.7)	33 (9.1)	36 (9.9)	103 (28.3)	105 (28.8)	265 (65.6)	179.77**
	미국	10 (2.5)	13 (3.2)	9 (2.2)	23 (5.7)	84 (20.8)	77 (21.2)	
직업제한	한국	77 (20.9)	88 (23.8)	99 (26.8)	62 (16.8)	29 (7.9)	14 (3.8)	151.41**
	미국	246 (56.6)	116 (26.7)	30 (6.9)	25 (5.7)	10 (2.3)	8 (1.8)	
허락필요	한국	59 (15.9)	105 (28.4)	69 (18.6)	84 (22.7)	44 (11.9)	9 (2.4)	78.89**
	미국	186 (42.8)	84 (19.3)	45 (10.3)	58 (13.3)	40 (9.2)	22 (5.1)	
부모선택순 중	한국	25 (6.8)	42 (11.4)	61 (16.5)	126 (34.1)	78 (21.1)	37 (10.0)	235.90**
	미국	179 (41.4)	126 (29.2)	42 (9.7)	38 (8.8)	26 (6.0)	21 (4.9)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진로선택과정을 따르기를 부모님이 기대하는지를 묻는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10.0%와 4.9%, ‘그렇다’가 21.1%와 6.0%, ‘대체로 그렇다’가 34.1%와 8.8%,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6.5%와 9.7%, ‘그렇지 않다’가 11.4%와 29.2%, ‘전혀 그렇지 않다’가 6.8%와 41.4%로 한국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가 선택한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자녀의 진로 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개입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진로가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 선택에서 부모의 제한과 허락을 요구하고 부모 자신들이 생각한 특정직업이나 진로를 갖도록 요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열과 자녀의 지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사회에서 한국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 그 이유와 관련된 사실들을 좀더 주의깊게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미 청소년의 성별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비교 분석

1)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장소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를 비교한 결과, <표Ⅲ-1>과 같이 한국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공공도서관, 친구집, 친척집, 문화회관, 직장 순으로, 미국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직장, 친구집, 친척집,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나타나, 한국 여자 청소년과 미국 여자 청소년이 모두 집과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였지만,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보다 직장이나 친구집, 친척집보다는 공공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각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빈도별 국가차를 살펴보면, 친척집, 친구집, 학교, 공공도서관, 직장에서의 사용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빈도의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2회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답자의 퍼센트는 한국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공공 도서관, 친구집, 친척집, 직장, 문화회관 순으로 각각 88.5%, 54.9%, 14.2%, 8.9%, 4.1%, 5.7%, 2.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직장, 친구집, 친척집,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각각 86.4%, 40.4%, 29.3%, 23.0%, 10.8%,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집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3.6%와 41.9%,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1.8%와 25.4%,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8%와 12.1%,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5%와 8.6%,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3%와 5.7%,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와 6.3%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친척집에서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집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6.4%와 28.8%,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5.7%와 31.3%,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8.9%와 16.9%,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9%와 8.6%,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7%와 6.1%,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3%와 2.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친

구집에서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5%와 4.4%,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5.5%와 33.3%,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6.1%와 21.9%,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1.9%와 19.3%,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8.8%와 8.8%,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4.2%와 12.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4.9%와 47.3%,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6.2%와 34.4%,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4.7%와 7.6%, 주 2회 사용하는 경우가 10.2%와 4.1%,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2%와 1.3%,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8%와 5.4%로 대체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91.5%와 63.5%,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9%와 2.5%,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9%와 4.8%,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8%와 5.1%,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와 2.9%,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9%와 21.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직장에서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집, 문화회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0%와 6.3%,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0%와 2.2%,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5.6%와 4.1%,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6.7%와 16.4%,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2.2%와 15.8%,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9.6%와 55.2%로 한국

<표Ⅲ-1>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

	국가	순 위	전혀 없음	월 1회	주 1회	주2회 이상	하루 1회	하루 2회이상	χ^2
집	한국	1	7 (3.0)	7 (3.0)	13 (5.6)	39 (16.7)	52 (22.2)	115 (49.6)	7.79
	미국	1	20 (6.3)	7 (2.2)	13 (4.1)	52 (16.4)	50 (15.8)	175 (55.2)	
친 척 집	한국	5	162 (73.6)	48 (21.8)	4 (1.8)	1 (0.5)	5 (2.3)	0 (0)	75.59 **
	미국	5	132 (41.9)	80 (25.4)	38 (12.1)	27 (8.6)	18 (5.7)	20 (6.3)	
친 구 집	한국	4	104 (46.4)	80 (35.7)	20 (8.9)	11 (4.9)	6 (2.7)	3 (1.3)	35.172 **
	미국	4	90 (28.8)	98 (31.3)	53 (16.9)	27 (8.6)	19 (6.1)	2.6 ()	
학 교	한국	2	8 (3.5)	35 (15.5)	59 (26.1)	72 (31.9)	20 (8.8)	32 (14.2)	16.44 **
	미국	2	5 (4.4)	38 (33.3)	25 (21.9)	22 (19.3)	10 (8.8)	14 (12.3)	
문 화 회 관 공 공 도 서 관	한국	6	194 (87.8)	13 (5.9)	8 (3.6)	2 (0.9)	2 (0.9)	2 (0.9)	7.58
	미국	7	258 (81.9)	22 (7.0)	10 (3.2)	10 (3.2)	4 (1.3)	11 (3.5)	
	한국	3	101 (44.9)	59 (26.2)	33 (14.7)	23 (10.2)	5 (2.2)	4 (1.8)	21.82 **
	미국	6	150 (47.3)	109 (34.4)	24 (7.6)	13 (4.1)	4 (1.3)	17 (5.4)	
직 장	한국	7	193 (91.5)	2 (0.9)	4 (1.9)	8 (3.8)	0 (0)	4 (1.9)	59.42 **
	미국	3	200 (63.5)	8 (2.5)	15 (4.8)	16 (5.1)	9 (2.9)	67 (21.3)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회관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컴퓨터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87.8%와 81.9%,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5.9%와 7.0%,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6%와 3.2%,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9%와 1.3%,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9%와 1.3%,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9%와 3.5%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를 살펴본 결과,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보다 집과 학교,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집중 제한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보다 사용빈도가 더 낮은 것은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부모로부터의 더 낮은 경제적 독립, 즉, 스스로 직장에 나가 수입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생살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보다 집과 문화회관을 제외하고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전반적으로 한국 여자 청소년의 생활 반경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장소

남자청소년을 중심으로 컴퓨터 사용장소를 비교한 결과, <표Ⅲ-2>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공공도서관, 친구집, 친척집, 문화회관, 직장순으로, 미국 남자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직장, 친구집, 친척집, 공공도서관, 문화회관순으로 나타나, 한국 남자 청소년과 미국 남자 청소년이 모두 집과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였지만,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직장이나 친구집, 친척집보다는 공공도서관에서 더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을 중심으로 각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빈도차를 살펴보면,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친척집, 친구집, 학교, 공공도서관, 직장에서의 사용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빈도의 순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한국 남자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공공 도서관, 친구집, 친척집, 직장, 문화회관 순으로 주2회 이상 사용이 각각 79.4%, 67.0%, 22.1%, 10.6%, 5.0%, 6.6%, 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직장, 친구집, 친척집, 공공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각각 98.6%, 63.5%, 36.4%, 23.9%, 20.4%, 7.7%,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공공 도서관과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이 0.1%더 많음에도 문화회관보다 더 앞순위로 놓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율을 고려하였기 때문임을 밝힌다.

남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컴퓨터 사용 장소에 대한 빈도별 차를 살펴보면, 친척집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9%와 50.0%,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9.0%와 22.9%,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4.1%와 6.8%,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7%와 10.2%,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5%와 5.1%,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0.8%와 5.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친척집에서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집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3.9%와 28.2%,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32.5%와 33.3%,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3.0%와 14.5%,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9%와 6.0%,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4%와 6.8%,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3%와 11.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친구집에서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

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7%와 6.3%,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7.9%와 28.1%,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0.5%와 21.9%,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4.6%와 31.3%,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0.2%와 9.4%,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22.0%와 3.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0.2%와 60.7%,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29.5%와 25.6%,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8.2%와 6.0%, 주 2회 사용하는 경우가 17.2%와 1.7%,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6%와 0.9%,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3%와 5.1%로 대체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87.5%와 57.6%,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8%와 5.0%,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5.0%와 3.4%,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2.5%와 3.4%,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8%와 4.2%,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3.3%와 28.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직장에서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집, 문화회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6.7%와 3.4%,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4.5%와 5.1%,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5%와 0.8%,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8.2%와 19.5%,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3.6%와 17.9%,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57.6%와 61.2%로 나타났다. 문화회관에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5.8%와 78.4%, 월 1회 사용하는 경우가 10.8%와 10.3%, 주 1회 사용하는 경우가 5.8%와

<표Ⅲ-2>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

	국가	순 위	전혀없 음	월 1회	주 1회	주2회 이상	하루 1회	하루 2회이상	χ^2
집	한국	1	9 (6.7)	6 (4.5)	2 (1.5)	11 (8.2)	16 (13.6)	68 (57.6)	8.42
	미국	1	4 (3.4)	6 (5.1)	1 (0.8)	23 (19.5)	24 (17.9)	82 (61.2)	
친척 집	한국	5	87 (71.9)	23 (19.0)	5 (4.1)	2 (1.7)	3 (2.5)	1 (0.8)	18.06
	미국	5	59 (50.0)	27 (22.9)	8 (6.8)	12 (10.2)	6 (5.1)	6 (5.1)	**
친구 집	한국	4	54 (43.9)	40 (32.5)	16 (13.0)	6 (4.9)	3 (2.4)	4 (3.3)	12.08
	미국	4	33 (28.2)	39 (33.3)	17 (14.5)	7 (6.0)	8 (6.8)	13 (11.1)	*
학교	한국	2	6 (4.7)	10 (7.9)	26 (20.5)	44 (34.6)	13 (10.2)	28 (22.0)	14.04
	미국	2	2 (6.3)	9 (28.1)	7 (21.9)	10 (31.3)	3 (9.4)	1 (3.1)	*
문화 회관	한국	6	91 (75.8)	13 (10.8)	7 (5.8)	7 (5.8)	0 (0)	2 (1.7)	4.68
	미국	7	91 (78.4)	12 (10.3)	4 (3.4)	3 (2.6)	1 (0.9)	5 (4.3)	
공공 도서 관	한국	3	49 (40.2)	36 (29.5)	10 (8.2)	21 (17.2)	2 (1.6)	4 (3.3)	21.44
	미국	6	71 (60.7)	30 (25.6)	7 (6.0)	2 (1.7)	1 (0.9)	6 (5.1)	**
직장	한국	7	105 (87.5)	1 (0.8)	6 (5.0)	3 (2.5)	1 (0.8)	4 (3.3)	35.79
	미국	3	68 (57.6)	3 (2.5)	4 (3.4)	4 (3.4)	5 (4.2)	34 (28.8)	**

주: ()은 %를 나타냄. * $p<.05$, ** $p<.01$

3.4%,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5.8%와 2.6%, 하루 1회 사용하는 경우가 0%와 0.9%,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7%와 4.3%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 남자 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장소를 살펴본 결과, 한국 남자 청소년이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집과 학교,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집중 제한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3)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목적을 비교한 결과, <표Ⅲ-3>과 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의 순서를 살펴보면, 이메일, 문서작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쇼핑, 음악 다운로드/MP3,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쇼핑,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쇼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게임,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웹기반 TV프로그램,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자청소년은 이메일,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문서작성,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게임, 인터넷 메신저, 스프레드시트, 음악 다운로드/MP3,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웹기반 TV프로그램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과 이메일, 문서 작성, 교육적 목적으로 인터넷 서핑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한국 여자청소년은 다른 경향으로 음악 다운로드/MP3,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를 더 즐겨 사용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 스프레드시트 등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터넷 사용목적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여자청소년은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메신저,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단체 이메일 리스트, 문서작성, 인터넷 쇼핑, 웹기반 TV 프로그램, 음악 다운로드/MP3,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에서는 사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메일,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게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사용빈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 여자 청소년은 컴퓨터를 ‘때때로’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순서대로 이메일, 문서작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음악 다운로드/MP3,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쇼핑,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쇼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게임,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웹기반 TV프로그램,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순으로 각각 99.6%, 95.3%, 93.6%, 91.8%, 90.0%, 88.4%, 80.9%, 72.2%, 70.7%, 59.3%, 54.6%, 40.7%, 32.6%,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자청소년은 이메일,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문서작성,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쇼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게임, 인터넷 메신저, 스프레드 쉬트, 음악 다운로드/MP3,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웹기반 TV프로그램순으로 97.1%, 96.5%, 94.9%, 91.4%, 84.9%, 82.8%, 82.5%, 76.9%, 70.4%, 67.0%, 61.4%, 55.2%, 41.5%, 37.9%, 30.0%,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용목적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메일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68.5%와 85.0%, ‘때때로 사용한다’가 31.1%와 12.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0.4%와 2.9%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이메일을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메신저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59.8%와 60.9%, '때때로 사용한다'가 31.2%와 16.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9.0%와 23.1%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메신저를 좀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5.8%와 56.4%, '때때로 사용한다'가 43.4%와 28.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0.8%와 15.1%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을 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게임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4.4%와 31.2%, '때때로 사용한다'가 56.3%와 51.3%,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9.3%와 17.5%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게임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7.0%와 57.3%, '때때로 사용한다'가 63.8%와 39.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8%와 3.5%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44.6%와 58.0%, '때때로 사용한다'가 47.2%와 33.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8.2%와 8.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체 이메일 리스트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

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6.1%와 13.3%, ‘때때로 사용한다’가 34.6%와 24.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59.2%와 62.1%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단체 이메일 리스트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서작성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9.3%와 67.3%, ‘때때로 사용한다’가 68.6%와 27.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2%와 5.1%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적었지만, 사용하는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스프레드 시트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8%와 19.0%, ‘때때로 사용한다’가 30.8%와 51.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67.4%와 29.5%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스프레드 시트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0.4%와 15.7%, ‘때때로 사용한다’가 15.5%와 45.7%,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84.1%와 38.7%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9.5%와 13.3%, ‘때때로 사용한다’가 69.0%와 41.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11.6%와 44.8%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쇼핑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웹기반 TV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5.3%와 2.2%, ‘때때로 사용한다’가 49.3%와 8.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5.3%와 89.2%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웹기반 TV프로그램을 더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음악 다운로드/MP3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42.1%와 38.2%, '때때로 사용한다'가 51.5%와 29.7%,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6.4%와 32.2%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음악 다운로드/MP3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 보기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2.2%와 10.4%, '때때로 사용한다'가 60.0%와 19.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7.8%와 70.0%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 보기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채팅과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채팅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2.2%와 12.1%, '때때로 사용한다'가 38.0%와 29.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9.8%와 58.5%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30.9%와 30.4%, '때때로 사용한다'가 50.0%와 52.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19.1%와 17.3%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오락이나 여가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레드 스위트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이는 미국 여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나 직장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Ⅲ-3>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

	국가	순위	전혀없음	때때로	일상으로	χ^2
이메일	한국	1	1 (0.4)	73 (31.1)	161 (68.5)	32.82**
	미국	1	9 (2.9)	38 (12.1)	266 (85.0)	
인터넷 메신저	한국	6	21 (9.0)	73 (31.2)	140 (59.8)	29.30**
	미국	8	72 (23.1)	50 (16.0)	190 (60.9)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한국	11	93 (40.8)	99 (43.4)	35 (15.8)	97.39**
	미국	5	47 (15.1)	98 (28.5)	176 (56.4)	
게임	한국	10	67 (29.3)	129 (56.3)	33 (14.4)	24.25**
	미국	7	55 (17.5)	161 (51.3)	98 (31.2)	
인터넷 서핑 (교육적 목적)	한국	3	11 (4.8)	157 (68.3)	62 (27.0)	49.89**
	미국	2	11 (3.5)	123 (39.2)	180 (57.3)	
인터넷 서핑 (오락적 목적)	한국	5	19 (8.2)	109 (47.2)	103 (44.6)	10.98**
	미국	4	27 (8.6)	105 (33.4)	182 (58.0)	
채팅	한국	13	114 (49.8)	87 (38.0)	28 (12.2)	4.78
	미국	13	193 (58.5)	92 (29.4)	38 (12.1)	
단체 이메일 리스트	한국	14	135 (59.2)	79 (34.6)	14 (6.1)	11.29**
	미국	14	192 (62.1)	76 (24.6)	41 (13.3)	
문서작성	한국	2	5 (2.2)	157 (68.6)	67 (29.3)	89.85**
	미국	3	16 (5.1)	87 (27.6)	212 (67.3)	
스프레드 쉬트	한국	15	153 (67.4)	70 (30.8)	4 (1.8)	88.15**
	미국	9	93 (29.5)	162 (51.4)	60 (19.0)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	16	190 (84.1)	35 (15.5)	1 (0.4)	115.89**
	미국	11	121 (38.7)	143 (45.7)	49 (15.7)	

	국가	순위	전혀없음	때때로	일상으로	χ^2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한국	8	44 (19.1)	115 (50.0)	71 (30.9)	0.42
	미국	6	54 (17.3)	164 (52.4)	95 (30.4)	
인터넷 쇼핑	한국	7	27 (11.6)	160 (69.0)	45 (19.5)	69.14**
	미국	12	141 (44.8)	132 (41.9)	42 (13.3)	
웹기반 TV 프로그램	한국	12	102 (45.3)	111 (49.3)	12 (5.3)	124.08**
	미국	16	280 (89.2)	27 (8.6)	7 (2.2)	
음악 다운로드/MP3	한국	4	15 (6.4)	120 (51.5)	98 (42.1)	58.81**
	미국	10	102 (32.2)	94 (29.7)	121 (38.2)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한국	9	64 (27.8)	138 (60.0)	28 (12.2)	105.41**
	미국	15	222 (70.0)	62 (19.6)	33 (10.4)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4)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목적을 비교한 결과, <표Ⅲ-4>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사용목적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터넷 메신저와 문서작성,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과 게임, 음악 다운로드/MP3,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이메일, 인터넷 쇼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웹기반 TV프로그램,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자청소년은 문서작성, 이메일,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쇼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게임, 인터넷 메신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음악 다운로드/MP3,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채팅,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단체 이메일 리스트, 웹기반

TV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를 볼 때, 한국 남자 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별로 즐겨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넷을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히 사용하였다. 또한,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인터넷 메신저를 즐겨 사용하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 남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각 인터넷 사용목적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단체 이메일 리스트, 문서작성,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웹기반 TV프로그램, 음악 다운로드/MP3,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보기에서 사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사용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를 ‘때때로’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남자 청소년은 컴퓨터 사용목적의 순서대로 인터넷 메신저와 문서작성,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과 게임, 음악 다운로드/MP3,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이메일, 인터넷 쇼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웹기반 TV프로그램,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순으로 각각 97.0%,와 97.0%, 91.8%, 91.7%과 91.7%, 91.0%, 72.2%, 86.2%, 78.2%, 77.2%, 68.4%, 56.1%, 45.4%, 43.6%, 22.6%이었다. 미국 남자청소년은 문서작성, 이메일,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게임, 인터넷 메신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음악 다운로드/MP3,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채팅,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단체 이메일 리스트, 웹기반 TV프로그램 순으로 94.1%, 94.0%, 88.9%, 88.1%, 84.8%, 82.0%, 81.5%, 76.3%, 72.3%, 65.3%,

61.9%, 52.6%, 50.0%, 47.5%, 31.6%,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목적 개별 항목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메일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65.4%와 79.5%, ‘때때로 사용한다’가 30.8%와 14.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3.8%와 6.0%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이메일을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메신저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72.9%와 61.5%, ‘때때로 사용한다’가 24.1%와 20.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3.0%와 17.9%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메신저를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1.8%와 56.9%, ‘때때로 사용한다’가 46.6%와 32.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31.6%와 11.9%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을 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47.4%와 62.4%, ‘때때로 사용한다’가 45.9%와 26.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6.8%와 11.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체 이메일 리스트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3.0%와 14.5%, ‘때때로 사용한다’가 42.4%와 17.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54.5%와 68.4%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단체 이메일 리스트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서작성의 경우,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35.8%와 55.1%, ‘때때로 사용한다’가 61.2%와

39.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3.0%와 5.9%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적었지만, 사용하는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이 보다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스프레스 슈트의 경우,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5.3%와 24.6%, ‘때때로 사용한다’가 38.3%와 40.7%,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56.4%와 34.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스프레드 슈트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3.8%와 22.9%, ‘때때로 사용한다’가 18.8%와 39.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77.4%와 38.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데이터 베이스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5.8%와 15.3%, ‘때때로 사용한다’가 62.4%와 37.3%,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1.8%와 47.5%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쇼핑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웹기반 TV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9.1%와 5.1%, ‘때때로 사용한다’가 48.5%와 10.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2.4%와 84.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웹기반 TV프로그램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음악 다운로드/MP3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42.1%와 47.5%, ‘때때로 사용한다’가 48.9%와 28.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9.0%와 23.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음악 다운로드/MP3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 보기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

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7.6%와 22.9%, ‘때때로 사용한다’가 59.0%와 24.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13.4%와 52.5%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영화 다운로드 및 영화 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게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채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게임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51.9%와 42.4%, ‘때때로 사용한다’가 39.8%와 42.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8.3%와 15.3%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38.3%와 51.7%, ‘때때로 사용한다’가 53.4%와 39.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8.3%와 8.5%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채팅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18.2%와 18.6%, ‘때때로 사용한다’가 37.9%와 31.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3.9%와 50.0%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가 28.0%와 35.0%, ‘때때로 사용한다’가 49.2%와 43.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22.7%와 21.4%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남자 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남자청소년의 직장활동과 관련이 있는

적 교류, 개인적 자유, 전문성, 혜택 등에 대하여 무엇이 직업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 순위를 알아보았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때 상담하는 의논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 다른 가족 구성원, 선생님, 친구, 상담사, 애인, 직장동료나 상관 등에 대하여 의논대상자의 순위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 결정의 조건과 의논대상자의 순위는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 의사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부모들은 어느정도 자신들의 선택을 지지할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청소년의 어머니, 아버지의 지지정도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에게 조사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모들에게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어느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를 각각 별도로 조사였다. 또한, 부모가 자신들의 진로선택에 제한을 둔다고 인식하는지, 직업을 결정할 때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부모의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결정에 관한 모든 조사 내용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났다. 이를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은 ‘괴팍한 사람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44.4%와 49.0%, ‘그렇지 않다’가 51.3%와 38.5%, ‘그렇다’가 3.8%와 9.6%, ‘매우 그렇다’가 0.4%와 3.8%의 응답율을 보여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괴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는 ‘대체로 남자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6.4%와 21.5%, ‘그렇지 않다’가 21.8%와 27.1%, ‘그렇다’가 68.8%와 41.3%, ‘매우 그렇다’가 3.0%와 10.1%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여자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8.1%와 21.6%, ‘그렇지 않다’가 87.2%와 50.8%, ‘그렇다’가 3.8%와 25.7%, ‘매우 그렇다’가 0.9%와 1.9%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대개 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흥미로운 사람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6.4%와 3.2%, ‘그렇지 않다’가 35.7%와 16.5%, ‘그렇다’가 52.8%와 67.4%, ‘매우 그렇다’가 5.1%와 13.0%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흥미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을 어떤 교과목 적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과목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수학을 잘한다’의 경우, 미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와 4.1%, ‘그렇지 않다’가

32.3%와 20.2%, ‘그렇다’가 58.7%와 50.8%, ‘매우 그렇다’가 6.4%와 24.9%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과학을 잘한다’의 경우, 미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와 4.7%, ‘그렇지 않다’가 40.4%와 24.3%, ‘그렇다’가 50.2%와 52.1%, ‘매우 그렇다’가 6.8%와 18.9%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과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어를 잘한다’의 경우, 미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6.0%와 7.4%, ‘그렇지 않다’가 51.9%와 40.9%, ‘그렇다’가 38.3%와 42.5%, ‘매우 그렇다’가 3.8%와 9.2%로 미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한다’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와 2.9%, ‘그렇지 않다’가 26.7%와 17.5%, ‘그렇다’가 68.1%와 56.1%, ‘매우 그렇다’가 3.0%와 23.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종사자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똑똑하다’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0.9%와 2.2%, ‘그렇지 않다’가 26.4%와 9.1%, ‘그렇다’가 68.9%와 56.8%, ‘매우 그렇다’가 3.8%와 30.9%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의 경우, 미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7%와 29.3%, ‘그렇지 않다’가 61.7%와 52.5%, ‘그렇다’가

15.7%와 15.9%, ‘매우 그렇다’가 0.9%와 2.2%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Ⅲ-5>한·미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 인식

	국가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괴팍한 사람이다	한국	104 (44.4)	120 (51.3)	9 (3.8)	1 (0.4)	16.68**
	미국	154 (49.0)	121 (38.5)	27 (9.6)	12 (3.8)	
대체로 남자이다	한국	15 (6.4)	51 (21.8)	161 (68.8)	7 (3.0)	50.54**
	미국	68 (21.5)	86 (27.1)	131 (41.3)	32 (10.1)	
대체로 여자이다	한국	19 (8.1)	205 (87.2)	9 (3.8)	2 (0.9)	82.86**
	미국	68 (21.6)	160 (50.8)	81 (25.7)	6 (1.9)	
흥미로운 사람이다	한국	15 (6.4)	84 (35.7)	124 (52.8)	12 (5.1)	36.79**
	미국	10 (3.2)	52 (16.5)	213 (67.4)	41 (13.0)	
수학을 잘한다	한국	6 (2.6)	76 (32.3)	138 (58.7)	15 (6.4)	37.60**
	미국	13 (4.1)	64 (20.2)	161 (50.8)	79 (24.9)	
과학을 잘한다	한국	6 (2.6)	95 (40.4)	118 (50.2)	16 (6.8)	27.45**
	미국	15 (4.7)	77 (24.3)	165 (52.1)	60 (18.9)	
영어를 잘한다	한국	9 (3.8)	120 (51.3)	96 (41.0)	9 (3.8)	8.59*
	미국	21 (6.6)	133 (42.1)	136 (43.0)	26 (8.2)	
다른 사람들과 교류 및 사회성 부족	한국	51 (21.7)	145 (61.7)	37 (15.7)	2 (0.9)	6.53
	미국	92 (29.3)	165 (52.5)	50 (15.9)	7 (2.2)	
열심히 일한다	한국	5 (2.2)	62 (26.7)	158 (68.1)	7 (3.0)	46.69
	미국	9 (2.9)	55 (17.5)	176 (56.1)	74 (23.6)	
똑똑하다	한국	2 (0.9)	62 (26.4)	162 (68.9)	9 (3.8)	82.27**
	미국	7 (2.2)	29 (9.1)	180 (56.8)	101 (31.9)	

주: ()은 %를 나타냄. * $p<.05$, ** $p<.01$

이상을 볼 때,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 보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를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미온적으로 응답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 한·미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 인식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종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한 결과 <표Ⅲ-6>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은 대개 남자이며,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으며, 괴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의 사회정서적 특성이나 지적 특성에 대해서는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는 대개 ‘괴팍한 사람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38.3%와 44.1%, ‘그렇지 않다’가 54.1%와 33.1%, ‘그렇다’가 5.3%와 17.8%, ‘매우 그렇다’가 2.3%와 5.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괴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대체로 남자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6.7%와 16.9%, ‘그렇지 않다’가 29.8%와 29.7%, ‘그렇다’가 53.3%와 43.2%, ‘매우 그렇다’가 10.4%와 10.2%의 응답율을 보여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여자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1%와 22.0%, ‘그렇지 않다’가 73.3%와 50.8%, ‘그렇다’가 7.6%와 22.9%, ‘매우 그렇다’가 0%와 4.2%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는 ‘흥미로운 사람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9.1%와 6.0%, ‘그렇지 않다’가 37.9%와 13.7%, ‘그렇다’가 50.8%와 62.4%, ‘매우 그렇다’가 2.3%와 17.9%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흥미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과목 적성과 컴퓨터 종사자와의 관련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수학을 잘한다’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4.2%와 4.2%, ‘그렇지 않다’가 43.2%와 16.1%, ‘그렇다’가 42.4%와 45.8%, ‘매우 그렇다’가 6.1%와 33.9%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과학을 잘한다’의 경우,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9.1%와 5.9%, ‘그렇지 않다’가 48.5%와 19.5%, ‘그렇다’가 37.9%와 45.8%, ‘매우 그렇다’가 4.5%와 28.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과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어를 잘한다’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9.8%와 9.4%, ‘그렇지 않다’가 53.0%와 37.6%, ‘그렇다’가 33.3%와 41.0%, ‘매우 그렇다’가 3.8%와 12.0%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는 대개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9%와 29.7%, ‘그렇지 않다’가 65.2%와 40.7%, ‘그렇다’가 19.7%와 20.3%, ‘매우 그렇다’가 2.3%와 9.3%로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열심히 일한다’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와 4.2%, ‘그렇지 않다’가 33.1%와 22.0%, ‘그렇다’가 57.9%와 45.8%, ‘매우 그렇다’가 6.0%와 28.0%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종사자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똑똑하다’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가 0.9%와 2.2%, ‘그렇지 않다’가 26.4%와 9.1%, ‘그렇다’가 68.9%와 56.8%, ‘매우 그렇다’가 3.8%와 30.9%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 관련 전공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는 대개 남자이고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열에 남자청소년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컴퓨터 종사자들이 괴팍한 사람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한국 남자 청소년이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더 지배적이지만 나머지 특성에 대해서는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긍정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인 것은 아마도 한국 청소년의 응답하는 자세의 미온적인 태도에 어느정도 기인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표Ⅲ-6>한·미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관련 종사자 인식

	국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괴팍한 사람이다	한국	51 (38.3)	72 (54.1)	7 (5.3)	3 (2.3)	16.99**
	미국	52 (44.1)	39 (33.1)	21 (17.8)	6 (5.1)	
대체로 남자이다	한국	9 (6.7)	40 (29.8)	72 (53.3)	14 (10.4)	7.14
	미국	20 (16.9)	35 (29.7)	51 (43.2)	12 (10.2)	
대체로 여자이다	한국	25 (19.1)	96 (73.3)	10 (7.6)	0 (0)	20.52**
	미국	26 (22.0)	60 (50.8)	27 (22.9)	5 (4.2)	
흥미로운 사람이다	한국	12 (9.1)	50 (37.9)	67 (50.8)	3 (2.3)	31.80**
	미국	7 (6.0)	16 (13.7)	73 (62.4)	21 (17.9)	
수학을 잘한다	한국	11 (4.2)	57 (43.2)	56 (42.4)	8 (6.1)	41.97**
	미국	5 (4.2)	19 (16.1)	54 (45.8)	40 (33.9)	
과학을 잘한다	한국	12 (9.1)	64 (48.5)	50 (37.9)	6 (4.5)	39.73**
	미국	7 (5.9)	23 (19.5)	54 (45.8)	34 (28.8)	
영어를 잘한다	한국	13 (9.8)	70 (53.0)	44 (33.3)	5 (3.8)	9.67*
	미국	11 (9.4)	44 (37.6)	48 (41.0)	14 (12.0)	
다른 사람들과 교류 및 사회성 부족	한국	17 (12.9)	86 (65.2)	26 (19.7)	3 (2.3)	20.94**
	미국	35 (29.7)	48 (40.7)	24 (20.3)	11 (9.3)	
열심히 일한다	한국	4 (3.0)	44 (33.1)	77 (57.9)	8 (6.0)	23.21**
	미국	5 (4.2)	26 (22.0)	54 (45.8)	33 (28.0)	
똑똑하다	한국	4 (3.1)	44 (33.6)	74 (56.5)	9 (6.9)	48.56**
	미국	6 (5.1)	11 (9.3)	54 (45.8)	47 (39.8)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7)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기를 비교한 결과, <표Ⅲ-7>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7>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국 가	초등학 교 이전	초등학 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 교 시절	대학시 절	χ^2
처음 인터넷 사용 시기	한 국	9 (3.8)	111 (47.2)	94 (40.4)	20 (8.5)	1 (0.4)	176.24**
	미 국	134 (42.4)	119 (37.7)	24 (7.6)	8 (2.5)	31 (9.8)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 유치원 시절 또는 초등학교 이전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각각 3.8%와 42.4%, 초등학교 시절이 47.2%와 37.7%, 중학교 시절이 40.4%와 7.6%, 고등학교 시절이 8.5%와 2.5%, 대학시절이 0.4%와 9.8%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을 좀 더 늦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기를 비교한 결과 <표Ⅲ-8>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컴퓨터를 처음 사용시

작한 시기가 유치원 시절 또는 초등학교 이전이 각각 4.5%와 45.8%, 초등학교 시절이 60.2%와 44.1%, 중학교 시절이 31.6%와 5.9%, 고등학교 시절이 3.0%와 2.5%, 대학시절이 0.8%와 1.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컴퓨터를 좀 더 늦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8>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작 시기

	국 가	초등학 교 이전	초등학 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 교 시절	대학 시절	χ^2
처음 인터넷 사용 시기	한 국	6 (4.5)	80 (60.2)	42 (31.6)	4 (3.0)	1 (0.8)	69.17**
	미 국	54 (45.8)	52 (44.1)	7 (5.9)	3 (2.5)	2 (1.7)	

주: ()은 %를 나타냄. * $p<.05$, ** $p<.01$

9)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조건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을 비교한 결과, <표Ⅲ-9>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여자청소년은 진로결정을 위한 조건으로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전문가로서의 대우, 높은 수준의 임금, 융통성있는 근무 시간,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승진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미국 여자청소년의 경우, 진로결정의 조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좋은 작업여건, 일과 가족생활간의 영역, 높은 수준의 임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승진기회,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 진로결정 조건에 대해

여 중요하다고 응답한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전문가로서의 대우는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높은 수준의 임금,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승진기회,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고위직 전문가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여자청소년이 진로결정에 중요시 여기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보인 비율을 살펴보면 중요시 여긴 항목의 순서대로,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전문가로서의 대우, 높은 수준의 임금, 융통성있는 근무 시간,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승진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 순으로 각각 97.5%, 97.0%, 96.6%, 92.1%, 91.4%, 90.7%, 90.2%, 86.8%, 69.8%, 67.7%, 5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좋은 작업여건, 일과 가족생활간의 영역, 높은 수준의 임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승진기회,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 순으로 각각 98.8%, 98.7%, 97.8%, 97.7%, 96.9%, 96.5%, 94.7%, 92.7%, 92.4%, 77.4%, 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조건에 대한 중요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6.8%와 53.1%, '중요하다'가 60.9%와 43.4%, '중요하지 않다'가 28.9%와 3.1%,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4%와 0.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임금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32.9%와 56.3%, ‘중요하다’가 58.5%와 40.6%, ‘중요하지 않다’가 9.1%와 2.2%,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4%와 0.9%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 생활간의 균형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8.2%와 62.1%, ‘중요하다’가 68.4%와 35.6%, ‘중요하지 않다’가 3.4%와 1.6%,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와 0.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일과 가족생활 간의 균형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기회의 경우,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4.5%와 52.5%, ‘중요하다’가 55.3%와 40.2%, ‘중요하지 않다’가 27.2%와 6.0%,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0%와 1.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승진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5.5%와 51.3%, ‘중요하다’가 64.7%와 43.4%, ‘중요하지 않다’가 9.4%와 4.7%,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4%와 0.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의 대우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33.3%와 28.5%, ‘중요하다’가 58.9%와 41.8%, ‘중요하지 않다’가 7.8%와 27.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와 2.2%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작업 여건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41.9%와 60.7%, ‘중요하다’가 55.6%와 37.1%, ‘중요하지 않다’가 2.1%와 2.2%,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4%와 0%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좋은 작업 여건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40.6%와 63.5%, ‘중요하다’가 59.6%와 44.0%, ‘중요하지 않다’가 56.4%와 35.2%,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0%와 1.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통성있는 근무 시간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31.1%와 48.4%, ‘중요하다’가 59.6%와 44.0%, ‘중요하지 않다’가 8.4%와 7.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4%와 0%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5.5%와 68.9%, ‘중요하다’가 61.3%와 29.5%, ‘중요하지 않다’가 12.3%와 0.9%,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9%와 0.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전문가로서의 기회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7.5%와 37.1%, ‘중요하다’가 42.3%와 40.3%, ‘중요하지 않다’가 38.5%와 21.1%,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6%와 1.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고위직 전문가로서의 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청소년은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회의 회사풍토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여자청소년이 더 중요시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봉사하는 사회의 풍토가 별로 조성되지 않은 사회

<표Ⅲ-9>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

	국가	순위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χ^2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 여부	한국	10	8 (3.4)	68 (28.9)	143 (60.9)	16 (6.8)	166.49* *
	미국	6	1 (0.3)	10 (3.1)	138 (43.4)	169 (53.1)	
높은 수준의 임금	한국	5	1 (0.4)	19 (9.1)	137 (58.5)	77 (32.9)	35.46**
	미국	5	3 (0.9)	7 (2.2)	129 (40.6)	179 (56.3)	
일과 가족 생활간의 균형	한국	3	0 (0)	8 (3.4)	160 (68.4)	66 (28.2)	65.01**
	미국	4	2 (0.6)	5 (1.6)	113 (35.6)	197 (62.1)	
승진기회	한국	9	7 (3.0)	64 (27.2)	130 (55.3)	34 (14.5)	102.68* *
	미국	8	4 (1.3)	19 (6.0)	127 (40.2)	166 (52.5)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한국	7	1 (0.4)	22 (9.4)	152 (64.7)	60 (25.5)	38.22**
	미국	7	2 (0.6)	15 (4.7)	137 (43.4)	162 (51.3)	
전문가로서의 대우	한국	4	0 (0)	18 (7.8)	136 (58.9)	77 (33.3)	41.20**
	미국	11	7 (2.2)	87 (27.5)	132 (41.8)	90 (28.5)	
좋은 작업 여건	한국	1	1 (0.4)	5 (2.1)	130 (55.6)	98 (41.9)	20.62**
	미국	3	0 (0)	7 (2.2)	118 (37.1)	193 (60.7)	
개인 시간을 가지는 여부	한국	2	7 (3.0)	132 (56.4)	0 (0)	95 (40.6)	28.89**
	미국	2	4 (1.3)	112 (35.2)	0 (0)	202 (63.5)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한국	6	1 (0.4)	21 (8.9)	140 (59.6)	73 (31.1)	18.05**
	미국	9	0 (0)	24 (7.5)	140 (44.0)	154 (48.4)	
직장으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	한국	8	2 (0.9)	29 (12.3)	144 (61.3)	60 (25.5)	112.19* *
	미국	1	1 (0.3)	3 (0.9)	95 (29.9)	219 (68.9)	
고위직 전문가	한국	11	4 (1.6)	90 (38.5)	99 (42.3)	41 (17.5)	32.44**
	미국	10	5 (1.6)	67 (21.1)	128 (40.3)	118 (37.1)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문화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승진기회나 고위직 전문가보다는 미국 여자 청소년이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0)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조건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을 비교한 결과, <표Ⅲ-10>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진로 결정의 조건으로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좋은 작업 여건,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전문가로서의 대우,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높은 수준의 임금,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승진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국 남자청소년의 경우, 좋은 작업 여건,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승진기회,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와 높은 수준의 임금,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승진기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남자청소년이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비교적 중요시하는 반면, 미국 남자청소년은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 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높은 수준의 임금,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승진기회,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좋은 작업 여건,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고위직 전문가는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진로결정시 중요하게 여기는 개별 요인들에 대해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좋은 작업 여건,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전문가로서의 대우,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높은 수준의 임금,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승진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의 순으로 각각 92.3%, 91.8%, 91.0%, 89.5%, 88.0%, 86.4%, 85.8%, 82.6%, 73.9%, 69.4%, 5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좋은 작업 여건,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승진기회,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와 높은 수준의 임금,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 순으로 각각 96.8%, 96.6%, 94.1%, 94.0%, 91.5%, 90.7%와 90.7%, 89.9%, 87.3%, 83.1%, 7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조건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8.2%와 39.0%, ‘중요하다’가 61.2%와 48.3%, ‘중요하지 않다’가 28.4%와 8.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2.2%와 4.2%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임금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0.1%와 53.4%, ‘중요하다’가 65.7%와 37.3%, ‘중요하지 않다’가 11.9%와 8.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2.24%와 0.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 생활간의 균형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30.6%와 57.6%, ‘중요하다’가 60.4%와 36.4%, ‘중요하지 않다’가 7.5%와 4.2%,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5%와 1.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일과 가족생활 간의 균형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기회의 경우,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9.0%와 55.1%, '중요하다'가 64.9%와 39.0%, '중요하지 않다'가 23.9%와 5.1%,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2.2%와 0.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승진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8.8%와 44.9%, '중요하다'가 70.7%와 45.8%, '중요하지 않다'가 9.8%와 6.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8%와 2.5%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의 대우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3.1%와 38.1%, '중요하다'가 64.9%와 41.5%, '중요하지 않다'가 10.4%와 16.9%,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5%와 3.4%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진로 결정시 좀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작업 여건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3.4%와 60.7%, '중요하다'가 64.2%와 35.6%, '중요하지 않다'가 8.2%와 2.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와 1.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좋은 작업 여건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41.8%와 64.4%, '중요하다'가 50.7%와 27.1%, '중요하지 않다'가 6.0%와 6.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5%와 1.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0>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

	국가	순위	전혀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χ^2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여부	한국	10	3 (2.2)	38 (28.4)	82 (61.2)	11 (8.2)	41.97*
	미국	9	5 (4.2)	10 (8.5)	57 (48.3)	46 (39.0)	*
높은 수준의 임금	한국	7	3 (2.2)	16 (11.9)	88 (65.7)	27 (20.1)	30.56*
	미국	6	1 (0.8)	10 (8.5)	44 (37.3)	63 (53.4)	*
일과 가족 생활간의 균형	한국	3	2 (1.5)	10 (7.5)	81 (60.4)	41 (30.6)	19.06*
	미국	4	2 (1.7)	5 (4.2)	43 (36.4)	68 (57.6)	
승진기회	한국	9	3 (2.2)	32 (23.9)	87 (64.9)	12 (9.0)	67.16*
	미국	3	1 (0.8)	6 (5.1)	46 (39.0)	65 (55.1)	*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한국	4	1 (0.8)	13 (9.8)	94 (70.7)	25 (18.8)	22.24*
	미국	6	3 (2.5)	8 (6.8)	54 (45.8)	53 (44.9)	*
전문가로서의 대우	한국	5	2 (1.5)	14 (10.4)	87 (64.9)	31 (23.1)	13.96*
	미국	11	4 (3.4)	20 (16.9)	49 (41.5)	45 (38.1)	*
좋은 작업 여건	한국	2	0 (0)	11 (8.2)	86 (64.2)	37 (134)	31.51*
	미국	1	2 (1.7)	3 (2.5)	42 (35.6)	71 (60.2)	*
개인 시간을 갖는 여부	한국	1	2 (1.5)	8 (6.0)	68 (50.7)	56 (41.8)	15.04*
	미국	5	2 (1.7)	8 (6.8)	32 (27.1)	76 (64.4)	*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한국	8	0 (0)	10 (7.5)	86 (64.2)	38 (28.4)	9.57*
	미국	8	1 (0.8)	11 (9.3)	54 (45.8)	52 (44.1)	
직장의 각종 혜택	한국	6	0 (0)	18 (13.5)	89 (66.9)	26 (19.5)	56.01*
	미국	2	1 (0.8)	3 (2.5)	38 (32.2)	76 (64.4)	*
고위직 전문가	한국	11	8 (5.9)	53 (39.3)	54 (40.0)	20 (14.8)	31.86*
	미국	10	4 (3.4)	16 (13.6)	50 (42.4)	48 (40.7)	*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유통성있는 근무 시간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28.4%와 44.1%, ‘중요하다’가 64.2%와 45.8%, ‘중요하지 않다’가 7.5%와 9.3%,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와 0.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유통성 있는 근무시간을 진로 결정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9.5%와 64.4%, ‘중요하다’가 66.9%와 32.2%, ‘중요하지 않다’가 13.5%와 2.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와 0.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전문가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매우 중요하다’가 14.8%와 40.7%, ‘중요하다’가 40.0%와 42.4%, ‘중요하지 않다’가 39.3%와 13.6%,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5.9%와 3.4%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고위직 전문가로서의 기회를 진로 결정시 더 중요하지 않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승진기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개인만의 여유로운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남자청소년이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중요시하는 반면, 미국 남자 청소년은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은 것은 한국 남자청소년이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을 비교한 결과, <표Ⅲ-11>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여자청

소년이 진로결정은 의논하는 대상은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동료 및 상관,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 친구,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애인, 직장 동료 및 상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 모두 부모님과 친구를 가장 중요한 의논대상으로 꼽는 공통점이 있었다. 두 나라 청소년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담사 및 학생 지도 교수와 거의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 여자청소년은 부모님, 선생님,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 친구, 애인, 다른 가족구성원, 직장 동료 및 상관에게 미국 여자청소년에 비해 의논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을 위해 의논하는 대상자의 순위별로 두 나라 여자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여자청소년이 ‘때때로 의논’하거나 ‘항상 의논’한다는 응답을 보인 대상이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동료 및 상관,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순으로 각각 96.1%, 95.2%, 75.9%, 64.8%, 44.6%, 25.5%,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자청소년은 부모님, 친구,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애인, 직장 동료 및 상관 순으로 각각 97.5%, 97.1%, 90.2%, 75.7%, 72.0%, 71.4%,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의논대상자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40.3%와 71.2%, ‘때때로 의논한다’가 54.9%와 6.32%,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4.7%와 2.5%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부모님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생님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2.1%와 12.0%, ‘때때로 의논한다’가 62.3%와 63.7%,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35.2%와 24.3%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선생님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Ⅲ-11>한국과 미국 여자청소년의 진로 결정 의논 대상자

	국가	순위	전혀 의논않함	때때로 의논함	항상 의논함	χ^2
부모님(혹은 나의 보호자)	한국	2	11 (4.7)	128 (54.9)	94 (40.3)	52.52**
	미국	1	8 (2.5)	83 (26.3)	225 (71.2)	
선생님	한국	4	82 (35.2)	146 (62.7)	5 (2.1)	22.18**
	미국	4	77 (24.3)	202 (63.7)	38 (12.0)	
상담사/학생지도 교수	한국	7	175 (74.5)	56 (23.8)	4 (1.7)	121.73**
	미국	5	89 (28.1)	176 (55.5)	52 (16.4)	
친구	한국	1	9 (3.9)	118 (50.6)	106 (45.5)	46.53**
	미국	2	9 (2.8)	74 (23.3)	234 (73.8)	
애인	한국	5	128 (55.4)	73 (31.6)	30 (13.0)	76.65**
	미국	6	90 (28.7)	73 (23.2)	151 (48.1)	
다른 가족구성원	한국	3	56 (24.1)	134 (57.8)	42 (18.1)	40.59**
	미국	3	31 (9.8)	157 (49.7)	128 (40.5)	
직장동료 및 상관	한국	6	169 (74.4)	47 (20.7)	11 (4.8)	19.85**
	미국	7	179 (56.6)	98 (31.0)	39 (12.3)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7%와 16.4%, ‘때때로

의논한다'가 23.8%와 55.5%,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74.5%와 28.1%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 결정시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와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45.5%와 73.8%, '때때로 의논한다'가 50.6%와 23.3%,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3.9%와 2.8%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 결정시 친구와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애인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3.0%와 48.1%, '때때로 의논한다'가 31.6%와 23.2%,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55.4%와 28.7%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애인과 더 적게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8.7%와 40.5%, '때때로 의논한다'가 57.8%와 49.7%,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24.1%와 9.8%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다른 가족구성원과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 동료 및 상관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4.8%와 12.3%, '때때로 의논한다'가 20.7%와 31.0%,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74.4%와 56.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직장동료 및 상관과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한국 여자 청소년이 상담사 및 학생 지도 교수와 미국 여자 청소년에 비해 거의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가 학생들과 진로를 상담하기에는 인적 자원에서 부족하고 아직 상담사의 위치 및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여자 청소년이

미국 여자 청소년보다 모든 가능한 의논대상자와 더 적은 빈도로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이 진로 탐색과 진로지도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1,2학년시기에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12)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

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자를 비교한 결과, <표Ⅲ-12>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남자 청소년은 진로결정을 위한 의논대상이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동료 및 상관, 상담사/학생지도 교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직장동료 및 상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친구 및 부모님이 진로 결정시 주로 의논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와 별로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부모님, 선생님,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 친구, 애인, 다른 가족구성원, 직장 동료 및 상관 등 모든 어떤 대상과도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 의논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논대상 순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남자청소년은 '항상 의논한다'와 '때때로 의논한다'라는 응답율이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동료 및 상관, 상담사/학생지도 교수 순으로 각각 94.7%, 88.9%, 58.6%, 56.7%, 42.8%, 34.6%,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자청소년의 경우,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직장동료 및 상관 순으로 각각 97.4%, 96.6%, 89.8%, 75.2%, 73.5%, 69.2%, 47.8%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의논대상자에 대한 빈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8.5%와 55.9%, '때때로 의논한다'가 70.4%와 40.7%,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11.1%와 3.4%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부모님과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생님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3.7%와 11.1%, '때때로 의논한다'가 53.0%와 64.1%,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43.3%와 24.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선생님과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4.5%와 11.1%, '때때로 의논한다'가 27.1%와 58.1%,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68.4%와 30.8%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와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28.8%와 67.5%, '때때로 의논한다'가 65.9%와 29.9%,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5.3%와 2.6%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친구와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애인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12.9%와 42.7%, '때때로 의논한다'가 29.9%와 30.8%,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57.6%와 26.5%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애인과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6.0%와 38.5%, '때때로 의논한다'가 52.6%와 51.3%,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41.4%와 10.3%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다른 가족구성원과 덜 상의

<표Ⅲ-12>한국과 미국 남자청소년의 진로 결정 의논대상

	국가	순위	전혀 의논않함	때때로 의논함	항상 의논함	χ^2
부모님(혹은 나의 보호자)	한국	2	15 (11.1)	95 (70.4)	25 (18.5)	39.32**
	미국	2	4 (3.4)	48 (40.7)	66 (55.9)	
선생님	한국	4	58 (43.3)	71 (53.0)	5 (3.7)	12.24**
	미국	4	29 (24.8)	75 (64.1)	13 (11.1)	
상담사/학생지도 교수	한국	7	91 (68.4)	36 (27.1)	6 (4.5)	35.38**
	미국	6	36 (30.8)	68 (58.1)	13 (11.1)	
친구	한국	1	7 (5.3)	87 (65.9)	38 (28.8)	37.36**
	미국	1	3 (2.6)	35 (29.9)	79 (67.5)	
애인	한국	5	76 (57.6)	39 (29.5)	17 (12.9)	34.52**
	미국	5	31 (26.5)	36 (30.8)	50 (42.7)	
다른 가족구성원	한국	3	55 (41.4)	70 (52.6)	8 (6.0)	53.39**
	미국	3	12 (10.3)	60 (51.3)	45 (38.5)	
직장동료 및 상관	한국	6	85 (65.4)	39 (30.0)	6 (4.6)	8.70*
	미국	7	60 (52.2)	38 (33.0)	17 (14.8)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 동료 및 상관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이 각각 '일상적으로 의논한다'가 4.6%와 14.8%, '때때로 의논한다'가 30.0%와 33.0%,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가 65.4%와 52.2%로 한국 남자

청소년이 미국청소년보다 진로결정시 직장동료 및 상관과 덜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 남자 청소년과 미국 남자 청소년이 모두 친구와 부모님을 주요 의논 대상으로 꼽는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아마도 이들이 두 나라의 남자청소년들에게 사적이면서도 가장 유의미한 대상이라는데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상담사 및 학생지도교수를 진로 결정시 선호하지 않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러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3) 한·미 부모의 여자청소년 진로에 대한 지지 정도

여자 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지지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Ⅲ-13>과 같이 나타났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게될 지지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였을 때, 어머니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각각 52.2%와 71.6%, ‘인정은 할 것이다’가 42.7%와 17.0%,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가 2.6%와 8.8%,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2.6%와 2.6%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어머니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지지정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각각 44.4%와 61.8%, ‘인정은 할 것이다’가 43.1%와 20.8%, ‘상관

하지 않을 것이다'가 6.0%와 13.7%,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6.5%와 3.8%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아버지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 여자청소년의 부모들이 미국 여자청소년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의 진로 선택에 더 제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Ⅲ-13> 여자청소년 진로결정에 대한 한·미 부모의 지지 정도

기대와 다른 진로 선택 경우	국가	인정/ 도움	인정함	상관없함	인정않함	χ^2
어머니	한국	121 (52.2)	99 (42.7)	6 (2.6)	6 (2.6)	47.24**
	미국	219 (71.6)	52 (17.0)	27 (8.8)	8 (2.6)	
아버지	한국	103 (44.4)	100 (43.1)	14 (6.0)	15 (6.5)	37.42**
	미국	181 (61.8)	61 (20.8)	40 (13.7)	11 (3.8)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14) 남자청소년 진로에 대한 한·미 부모의 지지 정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지지정도에 대한 남자청소년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표Ⅲ-14>과 같이 나타났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게 될 지지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인정 및 적극적인 지지가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였을 때, 어머니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49.6%와 70.3%, '인정은 할것이다'가 39.1%와 13.5%,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가 6.0%와 12.6%,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5.3%와 3.6%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어머니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각각 46.1%와 61.3%, '인정은 할것이다'가 42.2%와 17.0%,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가 7.0%와 12.3%,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4.7%와 9.4%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아버지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 남자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의사와 권고의 영향력을 미국의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Ⅲ-14>남자청소년 진로결정에 대한 한·미 부모의 지지정도

기대와 다른 진로 선택 경우	국가	인정/ 도움	인정함	상관않함	인정안함	χ^2
어머니는	한국	66 (49.6)	52 (39.1)	8 (6.0)	7 (5.3)	22.08**
	미국	78 (70.3)	15 (13.5)	14 (12.6)	4 (3.6)	
아버지는	한국	59 (46.1)	54 (42.2)	9 (7.0)	6 (4.7)	18.11**
	미국	65 (61.3)	18 (17.0)	13 (12.3)	10 (9.4)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15) 여자청소년 진로에 대한 한·미 부모의 개입 정도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개입정도에 대한 여자청소년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표Ⅲ-15>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여자청소년은 미국 여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진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러면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직업 제한이나 진로 선택의 허락 필요성은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특정 직업에 대한 기대와 압력은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나의 어머니에게 중요한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1.4%와 70.0%, '그렇다'가 29.5%와 19.5%, '대체로 그렇다'가 30.8%와 6.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7.7%와 1.3%, '그렇지 않다'가 8.5%와 2.3%,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와 0.7%의 응답율을 보여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이 어머니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직업을 갖는 것이 아버지에게 중요한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1.0%와 65.0%, '그렇다'가 28.8%와 21.4%, '대체로 그렇다'가 27.9%와 6.1%,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9.4%와 2.7%, '그렇지 않다'가 10.3%와 2.7%,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와 2.0%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이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을 두는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3.4%와 1.3%, '그렇다'가 10.7%와 2.5%, '대체로

그렇다'가 16.7%와 5.7%,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4.8%와 7.2%, '그렇지 않다'가 23.1%와 25.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4%와 58.2%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부모가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제한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5> 여자청소년 진로에 대한 한·미 부모의 개입 정도

자녀의 직업이	국 가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어머니에 게 중요	한	5	20	18	72	69	50	143.45
	국	(2.1)	(8.5)	(7.7)	(30.8)	(29.5)	(21.4)	
	미	2	7	4	19	60	215	
아버지에 게 중요	국	(0.7)	(2.3)	(1.3)	(6.2)	(19.5)	(70.0)	119.83**
	한	6	24	22	65	67	49	
	국	(2.6)	(10.3)	(9.4)	(27.9)	(28.8)	(21.0)	
직업제한	미	6	8	8	18	63	191	105.20**
	국	(2.0)	(2.7)	(2.7)	(6.1)	(21.4)	(65.0)	
	한	50	54	58	39	25	8	
허락필요	국	(21.4)	(23.1)	(24.8)	(16.7)	(10.7)	(3.4)	57.17**
	미	185	80	23	18	8	4	
	국	(58.2)	(25.2)	(7.2)	(5.7)	(2.5)	(1.3)	
부모선택 순종	한	30	63	43	61	32	6	175.74**
	국	(12.8)	(26.8)	(18.3)	(26.0)	(13.6)	(2.6)	
	미	130	59	40	44	31	13	
	국	(41.0)	(18.6)	(12.6)	(13.9)	(9.8)	(4.1)	
	한	15	24	34	84	57	21	
	국	(6.4)	(10.2)	(14.5)	(35.7)	(24.3)	(8.9)	
	미	131	93	33	26	19	14	
	국	(41.5)	(29.4)	(10.4)	(8.2)	(6.0)	(4.4)	
	한							

주: ()은 %를 나타냄. * $p < .05$, ** $p < .01$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

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6%와 4.1%, ‘그렇다’가 13.6%와 9.8%, ‘대체로 그렇다’가 26.0%와 13.9%,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8.3%와 12.6%, ‘그렇지 않다’가 26.8%와 18.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8%와 41.0%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대학 전공 선택시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부모님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진로선택과정을 부모님 결정에 따르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경우, 한국 여자청소년과 미국 여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8.9%와 4.4%, ‘그렇다’가 24.3%와 6.0%, ‘대체로 그렇다’가 35.7%와 8.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4.5%와 10.4%, ‘그렇지 않다’가 10.2%와 29.4%, ‘전혀 그렇지 않다’가 6.4%와 41.5%로 한국 여자청소년이 미국 여자청소년보다 부모님의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 여자청소년은 미국 여자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의 관심은 유사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 남자청소년 진로에 대한 한·미 부모의 개입 정도

한국과 미국 부모의 자녀의 진로 개입정도에 대한 남자청소년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표Ⅲ-16>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남자청소년은 미국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진로 선택이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은 편으로 인식한 반면,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과 부모로부터의 허락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가 특정 직업에 더 기대를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중요한지

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2.9%와 72.8%, ‘그렇다’가 29.6%와 15.8%, ‘대체로 그렇다’가 26.7%와 5.3%,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9.2%와 0.9%, ‘그렇지 않다’가 4.6%와 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와 0.7%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이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직업을 갖는 것이 아버지에게 중요한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1.4%와 67.3%, ‘그렇다’가 29.0%와 19.1%, ‘대체로 그렇다’가 29.0%와 4.5%,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0.7%와 0.9%, ‘그렇지 않다’가 6.9%와 4.5%,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와 3.6%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이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을 두는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3.4%와 4.4%, ‘그렇다’가 3.0%와 1.7%, ‘대체로 그렇다’가 17.0%와 6.0%,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0.4%와 6.0%, ‘그렇지 않다’가 25.2%와 30.8%,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0%와 52.1%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부모가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제한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2.2%와 7.6%, ‘그렇다’가 8.9%와 7.6%, ‘대체로 그렇다’가 17.0%와 11.9%,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9.3%와 4.2%, ‘그렇지 않다’가 31.1%와 21.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5%와 47.5%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대학전공 선택시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6>남자청소년 진로에 대한 한·미 부모의 개입 정도

자녀의 직업이	국 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어머니에 게 중요	한	6	9	12	35	39	30	65.55**
	국	(4.6)	(6.9)	(9.2)	(26.7)	(29.6)	(22.9)	
	미	3	3	1	6	18	83	
아버지에 게 중요	국	(2.6)	(2.6)	(0.9)	(5.3)	(15.8)	(72.8)	62.02**
	한	4	9	14	38	38	28	
	국	(3.1)	(6.9)	(10.7)	(29.0)	(29.0)	(21.4)	
직업제한	미	4	5	1	5	21	74	45.83**
	국	(3.6)	(4.5)	(0.9)	(4.5)	(19.1)	(67.3)	
	한	27	34	41	23	4	6	
허락필요	국	(20.0)	(25.2)	(30.4)	(17.0)	(3.0)	(3.4)	31.73**
	미	61	36	7	7	2	4	
	국	(52.1)	(30.8)	(6.0)	(6.0)	(1.7)	(4.4)	
부모선택 순종	한	29	42	26	23	12	3	64.54**
	국	(21.5)	(31.1)	(19.3)	(17.0)	(8.9)	(2.2)	
	미	56	25	5	14	9	9	
	국	(47.5)	(21.2)	(4.2)	(11.9)	(7.6)	(7.6)	
	한	10	18	27	42	21	16	
	국	(7.5)	(13.4)	(20.1)	(31.3)	(15.7)	(11.9)	
	미	48	33	9	12	7	7	
	국	(41.4)	(28.4)	(7.8)	(10.3)	(6.0)	(6.0)	
	한							

주: ()은 %를 나타냄. *p<.05, **p<.01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진로선택과정을 부모님이 따르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한국 남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은 각각 ‘매우 그렇다’가 11.9%와 6.0%, ‘그렇다’가 15.7%와 6.0%, ‘대체로 그렇다’가 31.3%와 10.3%,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0.1%와 7.8%, ‘그렇지 않다’가 13.4%와 28.4%, ‘전혀 그렇지 않다’가 7.5%와 41.4%로 한국 남자청소년이 미국 남자청소년보다 부모님의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 남자 청소년은 미국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이 자신들의 직업을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및 제언

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한국과 미국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집, 학교, 공공도서관, 친구집, 친척집, 직장, 문화회관 순으로, 미국 청소년은 집, 학교, 친구집, 직장, 친척집,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과의 각 인터넷 사용장소에 대한 빈도 별 차이에서는 친척집, 친구집, 학교, 공공도서관, 직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집과 학교에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직장이나 친구집 보다는 공공도서관을 인터넷 사용장소로 더욱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보다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의 사용 빈도가 더 많고, 친척집, 친구집, 직장에서의 사용빈도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목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경우 이메일, 문서작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인터넷 메신저, 음악 다운로드/MP3,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게임,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채팅, 웹기반 TV 프로그램, 단체 이메일 리스트,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한국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며, 그 다음이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문서작성, 오락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서핑,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게임,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인터넷 메신저, 음악 다운로드/MP3, 스프레드 쉬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쇼핑, 채팅, 단체 이메일 리스트, 영화 다운로드/영화보기, 웹기반 TV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이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은 대체로 여자이기보다는 남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괴팍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은 적었지만, 인성이나 사회성 그리고 지적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더 늦은 시기에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진로결정조건을 비교한 결과 순위별로 보면, 한국 청소년은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융통성있는 근무 시간, 전문가로서의 대우,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높은 수준의 임금,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승진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고위직 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은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좋은 작업 여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높은 수준의 임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승진기회,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고위직 전문가, 전문가로서의 대우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높은 임금수준이나, 다른 사람

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 대우와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조건에 대한 빈도별 두 나라 청소년들의 차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진로결정 의논대상자는 친구, 부모님,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직장 동료 및 상관,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청소년은 부모님, 친구,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 애인,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 직장동료 및 상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부모보다 친구에게 의논상대자로 더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은 상담사 및 학생지도 교수가 한국 청소년에 비해 자신들의 의논상대로 더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 결정 의논 대상자에 대한 빈도별 차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지지정도를 비교한 결과,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결정을 지원할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약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부모가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들은 모두 자신들의 진로선택에 대해서 대체로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진로 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 부모의 개입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진로가 덜 중요한 것으로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보다 자신의 직업 선택에서 부모의 제한이 있으며, 부모 자신들이 생각한 특정직업이나 진로를 갖도록 요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결론 및 제언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 미국의 청소년에 비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나 그래픽, 디자인 등 업무나 작업용 목적보다는 인터넷 메신저, 게임, 영화나 음악의 다운로드, 쇼핑 등 오락용이나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용도로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이 컴퓨터를 자신의 직업적 혹은 전문성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는 여가선용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사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인지도는 높일 수 있었으나 그 활용면에서는 미국 청소년에 비해 발전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컴퓨터 교육은 편리한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을 위한 기술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활용 및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을 높이고, 컴퓨터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측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청소년에 비하여 과학이나 수학을 잘하거나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고 근면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시에 전공선택이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일 수록 컴퓨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의사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을 선호하는 경향과도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이공계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과 각종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외에 과학 기술 종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롤모델을 부각시킨다거나, 사회적인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사회적 시류에 편승하는 진로 선택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자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진업교육이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미국의 청소년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기가 늦은 것은 조기교육에서 컴퓨터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찍부터 과학기술 관련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고, 흥미를 키우게 하는 것은 사회의 인기 위주보다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분야 직업을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 부터 과학이나 수학은 어렵거나 딱딱한 아이들이 잘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지양하고, 친숙하고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이 중시하는 직업의 조건은 좋은 작업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은 미국 청소년과 유사하였지만 미국 청소년이 각종 혜택과 임금조건을 더 선호하고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가장 미비한데 비하여 한국 청소년은 자유시간과 일과 가족과의 생활 균형, 전문적 직업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미국 청소년이 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 청소년은

이에 대한 고려가 아주 미비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역할의 의미로써보다는 개인적인 여유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직업교육에 있어서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의논의 대상자로 미국 청소년은 부모가 가장 우선 순위를 보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에 가장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청소년은 상담사나 학생지도교수와도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상담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상담사에 대한 제도적 정착이 미약할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편안한 상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들과 거리가 먼 사회제도적 장치로써만 인식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사람과 자신의 진로를 의논할 기회가 적어 올바른 진로지도와 결정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직업교육,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등이 대해 청소년들에게 권위적인 지위로만 인식되지 않고 보다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며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실이 청소년들에게 지시와 훈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격없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상담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중등학교 여학생용 진로지도
지침개발. 제2부:지침서. 교육인적자원부
-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역)(1997)
청소년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 정책과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김재원(1998). 여성의 취업과 진로, 법경사
- 김혁진, 정익재, 김진호(1999). 인터넷 정보 활용. 문화관광부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 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자기 성장을 위한 합리적
접근, 양서원
- 다카하시 요시이키(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역)(1997),
교육훈련의 일,독,한 비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최지희, 강일규, 나영선(1999). 고등교육단계의 여성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인자(1999). 인터넷 자원 활용론. 창조문화
- 여성부(2001).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 윤평준, 노전표(2003). 인터넷 지역정보화의 실태와 전쟁. 집문당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 맹영임, 임성택(2000).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영대(1995). 진로 정보망 탑재용 진로정보컨텐츠 개발연구.
교육부
- 이용순(1999). 직업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춘우(2001). 정보화사회의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림(2003). 현대진로상담. 학지사
- 이현청(1999). 한국의 대학생:의식구조와 국제 경쟁력. 원미사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이론연구 및 적용. 학지사
- 장원섭, 김현만, 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고등교육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보통신부(1999).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통신부
- 진미석, 정혜화(2001).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학생 진로 지도 체계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차경숙(2000). 한국의 청소년 정책. 양서원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6). 청소년을 위한 진로
최지희(1998). 국민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2차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경영관리실 기획부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한국 인터넷 통계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Clark, D. (2002), Digital divide, National Journal, vol.34(36)
p.2532.
- Dochartaigh, N.O.(2002), Digital divide, West European politics,
vol.25(4), p.249.
- Edward-Johnson, A.L.(2000), Closing the digital divide,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vol.27(6), p.898-900.
- Hess, F.M. & Leal, D.L.(2001), A shirinking digital divid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82(4), p.765-778.
- Keane, M.P. & Wolpin, K.I.(1997), The career decisions of
young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Chicago,
vol.105(3), p.473.
- Melhem, S.(2001), Digital divide: Issues, policy, and case
studies,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American
society, vol.38, pp.593-595.
- Natriello, G. (2001), Bridging the second digital divide:What
can sociologists of education do?, Sociology of

education, vol.73(3), p.264-265.

OECD(2001), Learning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29(2). pp.236-238.

부 록

1. 한국 청소년 대상 설문지
2. 미국 청소년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본 조사결과는 연구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질문의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다만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니 각 문항 당 한 개의 답안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기타” 문항 옆 빈 칸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email : seonmkim@hotmail.com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을 기입해 주십시오.

- (1) 여자 (2) 남자

2. 귀하의 생년월일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년 _____ 월 _____ 일

3. 귀하의 부모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1) 혼인 (2) 이혼
(3) 별거 (4) 사별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다음은 각종 단체 활동 참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1년 이내	1년 이상
4. 각종 교내 학생 위원회 및 학생 대표 활동			
5. 각종 서클 및 학급 위원회 활동			
6. 각종 스포츠 팀의 리더 활동			
7. 각종 교회 및 청소년 단체 활동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9. 귀하의 부모님의 현재 수입은 얼마입니까?

- (1) 월 평균 2백만원 미만
(2) 월 평균 2백만원 3백만원 미만
(3) 월 평균 3백만원- 5백만원 미만
(4) 월 평균 5백만원- 7백만원 미만
(5) 월 평균 7백만원 이상 (6) 모른다

10. 귀하의 아버님(혹은 남성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1) 고등학교 (2) 전문대 졸
- (3) 대학 졸 (4) 석사
- (5) 박사
- (6) 전문직 자격자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 (7) 기타 (구체적으로_____) (8) 모른다

11. 귀하의 어머님(혹은 여성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1) 고등학교 (2) 전문대 졸
- (3) 대학 졸 (4) 석사
- (5) 박사
- (6) 전문직 자격자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 (7) 기타 (구체적으로_____) (8) 모른다

◆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기술/정보 관련 과정을 수강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예/아니오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미래 전공/부전공 때문에

- (1) 예 (2) 아니오

13. 기술/정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 관심 및 열정 때문에

- (1) 예 (2) 아니오

14. 귀하의 책에는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 (1) 0대 (2) 1대
- (3) 2대 (4) 3대
- (5) 4대 (6) 4대 이상

15. 귀하는 언제 처음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까?

- (1) 유치원 시절, 또는 초등학교 이전
- (2) 초등학교 시절
- (3) 중학교 시절
- (4) 고등학교 시절
- (5) 대학 시절

◆ 다음은 귀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장소에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1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여러 번	하루에 한번	하루에 여러 번
16. 집						
17. 친척집						
18. 친구집						
19. 학교						
20. 문화 회관						
21. 공공 도서관						
22. 직장						
23. 인터넷카페/PC방						
24.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다음은 귀하의 컴퓨터 관련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상적이란 일주일 내에 여러 번 컴퓨터를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전혀 없다	때때로	일상적 으로
25. 이메일			
26. 인터넷 메신저			
27. 웹사이트 및 그래픽 관련 활동			
28. 게임			
29. 인터넷 서핑 (교육적 목적)			
30. 인터넷 서핑 (오락적 목적)			
31. 채팅			
32. 단체 이메일 리스트			
33. 문서 작성			
34. 스프레드 쉬트			
35. 데이터베이스 구축			
36. 뉴스 및 각종 최근 정보 업데이트			
37. 인터넷 쇼핑			
38. 웹 기반 TV 프로그램			
39. 음악 다운로드/MP3			
40. 영화 다운로드/영화 보기			

- ◆ 다음은 컴퓨터 관련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컴퓨터 관련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괴팍한 사람이다.				
42. 대체로 남자이다				
43. 대체로 여자이다				
44. 흥미로운 사람이다				
45. 수학을 잘한다				
46. 과학을 잘한다				
47. 영어를 잘한다				
48.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적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49. 열심히 일한다				
50. 똑똑하다				
51. 인생을 즐기며 즐거운 일들을 추 구한다				
52. 멋지다				
53. 전문적이다				
54. 창의적이다				

- ◆ 다음은 귀하의 결정에 부모님(혹은 보호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상관 없다
55.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나의 어머니(혹은 여성 보호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56.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나의 아버지(혹은 남성 보호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57. 나의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을 둔다.							
58. 나는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9. 나의 부모님(혹은 보호자)은 내가 어떠한 특정 직업을 갖거나 특정한 진로 선택 과정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 ◆ 다음은 귀하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_____ 은(는) 중요한 조건(들)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0.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 여부				
61. 높은 수준의 임금				
62. 일과 가족 생활간의 균형				
63. 승진 기회				
64.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65. 전문가로서의 대우				
66. 좋은 작업 여건				
67.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68.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69. 직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70. 고위직 전문가				

- ◆ 다음은 귀하의 진로를 누구와 얼마나 대화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진로를 _____ 와 함께 의논한다.”

	전혀 없다	때때로	일상적 으로
71. 부모님(혹은 나의 보호자)			
72. 선생님			
73. 상담사/학생지도교수			
74. 친구			
75. 애인			
76. 다른 가족구성원			
77. 직장동료/상관			
7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9. 만약 내가 나의 어머니(혹은 여성 보호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경우, 나의 어머니(혹은 여성 보호자)는_____.

- (1) 나의 결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 (2) 나의 결정을 인정은 할 것이다
- (3) 나의 결정에 대해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 (4) 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80.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혹은 남성 보호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경우, 나의 아버지(혹은 남성 보호자)는_____.

- (1) 나의 결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 (2) 나의 결정을 인정은 할 것이다
- (3) 나의 결정에 대해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 (4) 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다음은 귀하의 의사 결정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나는 학업 관련 일을 할 때, 스스로 우선 순위를 정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82. 나는 개인적인 일을 할 때, 스스로 우선 순위를 정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83.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84. 나는 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						
85. 나는 내 스스로 개인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						
86.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87.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친구들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88. 나의 결정에 대해 나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반대할 경우, 나는 그들의 반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D# _____

Women in Information Technology (WIT) 2001 High School Student Survey

Directions: Use a #2 pencil to fill in the circle that corresponds with your answer. Print answers to the Other questions on the line following the question in the booklet. Mark only one (1) choice for each question.

1. Indicate your Gender

- (1) Female (2) Male

2. Indicate your Race/Ethnicity

- (1) African American (5) Multiracial
(2) Asian American (6) Native American
(3) Caucasian/White (7) Pacific Islander
(4) Hispanic American (8) Other (Please Specify) _____

3. Citizenship Status

- (1) US Citizen (3) Student Visa
(2) Permanent Resident

4. With whom do you live?

- (1) Parent(s) (4) Grandparent(s)
(2) Aunt/Uncle (5) Other (Please Specify) _____
(3) Sibling(s)

5. Was your mother/female guardian born in the USA?

- (1) Yes (3) Don't Know
(2) No

6. Was your father/male guardian born in the USA?

- (1) Yes (3) Don't Know
(2) No

7. What is the marital status of your parents?

- (1) Married (5) Widowed
(2) Divorced (6) Other (Please Specify) _____
(3) Never Been Married
(4) Living Separately but not Divorced

8. Please indicate your marital status.

- (1) Never been married (3) Divorced
(2) Married (4) Separated

9.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 (1) 1 (5) 5
(2) 2 (6) More than 5
(3) 3 (7) None
(4) 4

10.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 (1) 1 (5) 5
(2) 2 (6) More than 5
(3) 3 (7) None
(4) 4

11.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 | | |
|-------|-----------------|
| (1) 1 | (5) 5 |
| (2) 2 | (6) More than 5 |
| (3) 3 | (7) None |
| (4) 4 | |

12. What birth order do you hold in your family?

- (1) Only Child
- (2) First-Born (Not the Only Child)
- (3) Last-Born
- (4) Other

Items 13-21 are a lis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dicate whether or not you currently participate or have participated in each using the scale (1) Not At All, (2) One Year or Less, or (3) More Than One Year.

	Not At <u>All</u> (1)	One Year <u>or Less</u> (2)	More Than <u>One Year</u> (3)
13. Band or Musical Group	(1)	(2)	(3)
14. Sports Team	(1)	(2)	(3)
15. Boy Scouts, Girl Scouts, or 4H	(1)	(2)	(3)
16. Theatre or Arts Group	(1)	(2)	(3)
17. Church/Youth Group	(1)	(2)	(3)
18. Community Group(other than church)	(1)	(2)	(3)
19. Math or Science Club	(1)	(2)	(3)
20. Technology Club	(1)	(2)	(3)
21. Other (Please Specify)_____	(1)	(2)	(3)

Items 22-26 are a list of offices. Indicate whether or not you currently hold or have held each using the scale (1) Not At All, (2) One Year or Less, or (3) More Than One Year.

	Not At One Year More Than		
	<u>All</u>	<u>or Less</u>	<u>One Year</u>
	(1)	(2)	(3)
22. Student Government/Council Officer	(1)	(2)	(3)
23. Other Club/Organization Officer	(1)	(2)	(3)
24. Team/Co-Captain or Captain	(1)	(2)	(3)
25. Church/Youth Group Officer	(1)	(2)	(3)
26. Other (Please Specify) _____	(1)	(2)	(3)

27. How many times has your family moved since you were born?

- | | | |
|---------|---------|----------------|
| (1) 0 | (3) 4-6 | (5) 10 or More |
| (2) 1-3 | (4) 7-9 | |

28. What is your parents' combined income?

- | | |
|-------------------------|-------------------------------------|
| (1) \$0 - \$25,999 | (4) \$76,000 - \$100,000 |
| (2) \$26,000 - \$50,999 | (5) Over \$100,000 |
| (3) \$51,000 - \$75,999 | (6) Don't Know or Decline to Answer |

29.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by your father?

- (1) High School or Equivalent
- (2) Associate's Degree
- (3) Bachelor's Degree
- (4) Master's Degree
- (5) Ph.D. or Ed.D.
- (6) Professional Degree (Medical Doctor, Veterinarian, Dentist, Lawyer)

- (7) Other (Please Specify) _____
- (8) Don't Know
- (9) N/A

30.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by your mother?

- (1) High School or Equivalent
- (2) Associate's Degree
- (3) Bachelor's Degree
- (4) Master's Degree
- (5) Ph.D. or Ed.D.
- (6) Professional Degree (Medical Doctor, Veterinarian, Dentist, Lawyer)
- (7) Other (Please Specify) _____
- (8) Don't Know
- (9) N/A

31. How many hours are you employed each week?

- (1) None (I am not employed)
- (2) 0-5 hours
- (3) 6-10 hours
- (4) 11-15 hours
- (5) 16-20 hours
- (6) 21-30 hours
- (7) 31-40 hours
- (8) More than 40 hours

32. How likely is it that you will continue your education after high school?

- (1) Unlikely
- (2) Somewhat likely
- (3) Very likely

33. How likely is it that you will take courses related to computers in college?

- (1) Unlikely
- (2) Somewhat likely
- (3) Very likely

Items 34-40 list reasons for taking technology courses after high school. If it is a reason why you would likely take a technology course, mark (1) Yes. Otherwise, mark (2) No.

- | | |
|--|----------------|
| 34. Graduation requirement | (1) Yes (2) No |
| 35. Possible major/minor | (1) Yes (2) No |
| 36. Will help with future college coursework | (1) Yes (2) No |
| 37. Recommended by parent/guardian | (1) Yes (2) No |
| 38. Will be needed to get a good job | (1) Yes (2) No |
| 39. General Interest/Passion for Technology | (1) Yes (2) No |
| 40. Other (Please Specify) _____ | (1) Yes (2) No |

41. How many computers are there in your home?

- | | |
|-------|-----------------|
| (1) 0 | (4) 3 |
| (2) 1 | (5) 4 |
| (3) 2 | (6) More than 4 |

42. When did you first use a computer?

- (1) Preschool
- (2) Elementary School
- (3) Middle School
- (4) High School

Items 43-50 list places where computers are used. Using the scale (1) Never, (2) Once a Month, (3) Once a Week, (4) Several Times a Week, (5) Once a Day, or (6) Several Times a Day, rate the amount of time you use computers in each location.

	<u>Never</u>	<u>Once</u>	<u>Once</u>	<u>Several</u>	<u>Once</u>	<u>Several</u>
	<u>(1)</u>	<u>a Month</u>	<u>a Week</u>	<u>Times</u>	<u>a Day</u>	<u>Times</u>
	(1)	(2)	(3)	(4)	(5)	(6)
43. Home	(1)	(2)	(3)	(4)	(5)	(6)
44. Relative's House	(1)	(2)	(3)	(4)	(5)	(6)
45. Friend's House	(1)	(2)	(3)	(4)	(5)	(6)
46. School	(1)	(2)	(3)	(4)	(5)	(6)
47. Community Centers	(1)	(2)	(3)	(4)	(5)	(6)
48. Public Library	(1)	(2)	(3)	(4)	(5)	(6)
49. Work	(1)	(2)	(3)	(4)	(5)	(6)
50. Other (Please	(1)	(2)	(3)	(4)	(5)	(6)
Specify) _____						

For items 51-66, indicate whether you use a computer for each activity on a regular basis. By regular basis, we mean several times a week or more. Mark your answer with (1) Never, (2) Occasionally, or (3) Regularly.

	<u>Never</u>	<u>Occasionally</u>	<u>Regularly</u>
	(1)	(2)	(3)
51. Email	(1)	(2)	(3)
52. Instant Messaging	(1)	(2)	(3)
53. Websites or Graphics	(1)	(2)	(3)
54. Games	(1)	(2)	(3)
55. Internet Surfing (Educational Purposes)	(1)	(2)	(3)
56. Internet Surfing (Entertainment)	(1)	(2)	(3)
57. Chat Rooms	(1)	(2)	(3)
58. Listserves	(1)	(2)	(3)
59. Word Processing	(1)	(2)	(3)
60. Spreadsheets	(1)	(2)	(3)
61. Databases	(1)	(2)	(3)
62. News or Current Events	(1)	(2)	(3)
63. Online Shopping	(1)	(2)	(3)
64. WebTV	(1)	(2)	(3)
65. Music Downloads/MP3s	(1)	(2)	(3)
66. Movie Viewing (DVDs)	(1)	(2)	(3)

Items 67-76 deal with characteristics some people associate with people who choose careers in computers. Use the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Agree, or (4) Strongly Agree to respond to each item.

I think people who choose careers in computers are:

	Strongly <u>Disagree</u>	<u>Disagree</u>	<u>Agree</u>	Strongly <u>Agree</u>
	(1)	(2)	(3)	(4)
67. geeks	(1)	(2)	(3)	(4)
68. likely to be male	(1)	(2)	(3)	(4)
69. likely to be female	(1)	(2)	(3)	(4)
70. interesting	(1)	(2)	(3)	(4)
71. good in Math	(1)	(2)	(3)	(4)
72. good in Science	(1)	(2)	(3)	(4)
73. good in English	(1)	(2)	(3)	(4)
74. loner/antisocial	(1)	(2)	(3)	(4)
75. hard working	(1)	(2)	(3)	(4)
76. smart	(1)	(2)	(3)	(4)

For items 77-83, use the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Slightly Disagree, (4) Slightly Agree, (5) Agree, (6) Strongly Agree, or (7) Not Applicable (N/A) to rate your answers.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N/A
	(1)	(2)	(3)	(4)	(5)	(6)	(7)
77. It is important to my mother/female guardian that I have a career.	(1)	(2)	(3)	(4)	(5)	(6)	(7)
78. It is important to my father/male guardian that I have a career.	(1)	(2)	(3)	(4)	(5)	(6)	(7)
79. I have a plan for what I would like to do as a career.	(1)	(2)	(3)	(4)	(5)	(6)	(7)
80. I feel that my parents/guardian limit my career choices.	(1)	(2)	(3)	(4)	(5)	(6)	(7)
81. I feel that my parents/guardian will allow me to choose any career that interests me.	(1)	(2)	(3)	(4)	(5)	(6)	(7)
82. I feel that I need my parents'/guardian's approval to pick my major in college.	(1)	(2)	(3)	(4)	(5)	(6)	(7)
83. My parents/guardian expect me to pursue a certain career or career route.	(1)	(2)	(3)	(4)	(5)	(6)	(7)

In 84-94, rate how important each of the following are to you in your career choice. Rate your answer using the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Agree, or (4) Strongly Agree.

I feel that the following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 career that I would choose: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2)	(3)	(4)
84. Ability to help people	(1)	(2)	(3)	(4)
85. Good salary	(1)	(2)	(3)	(4)
86. Ability to balance work and family	(1)	(2)	(3)	(4)
87. Opportunity for promotion	(1)	(2)	(3)	(4)
88.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others	(1)	(2)	(3)	(4)
89. Recognition as an expert	(1)	(2)	(3)	(4)
90.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1)	(2)	(3)	(4)
91. Time to have a life outside of work	(1)	(2)	(3)	(4)
92. Flexible hours	(1)	(2)	(3)	(4)
93. Good benefits	(1)	(2)	(3)	(4)
94. High status profession	(1)	(2)	(3)	(4)

In 95-102, rate how often you have discussed your career plans with each of the following using the scale (1) Never, (2) A Few Times, or (3) Often. I discuss my career plans with:

	<u>Never</u>	<u>A Few Times</u>	<u>Often</u>
	(1)	(2)	(3)
95. Parents	(1)	(2)	(3)
96. Teachers	(1)	(2)	(3)
97. Counselor/Advisor	(1)	(2)	(3)
98. Friends	(1)	(2)	(3)
99. Significant Other	(1)	(2)	(3)
100. Other Family Members	(1)	(2)	(3)
101. Co-Workers/Boss	(1)	(2)	(3)
102. Other (Please Specify) _____	(1)	(2)	(3)

103. If I picked a career that was different from my mother's expectations, my mother would likely:

- (1) Approve and be supportive
- (2) Approve
- (3) Not care
- (4) Not approve

104. If I picked a career that was different from my father's expectations, my father would likely:

- (1) Approve and be supportive
- (2) Approve
- (3) Not care
- (4) Not approve

105. When thinking about what you learn in school, which response best fits your opinion?

- (1) In almost all cases, things are sure. There is a right answer.
- (2) In almost all cases, things are sure. In some cases, things are open to interpretation. (or fuzzy)
- (3) In most cases, things are open to interpretation.

106. When thinking about how you make decisions about your personal life, which response best fits your opinion?

- (1) In almost all cases, things are sure. There is a right answer.
- (2) In almost all cases, things are sure. In some cases, things are open to interpretation. (or fuzzy)
- (3) In most cases, things are open to interpretation.

107. When two experts in the same field have different views, that means:

- (1) One is probably wrong
- (2) A variety of equally valid views is possible
- (3) They are using different evidence to arrive at their views

For items 108-1158, rate the extent that you 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using the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Slightly Disagree, (4) Slightly Agree, (5) Agree, or (6)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1)	(2)	(3)	(4)	(5)	(6)
108. I am confident about my ability to set my own priorities about schoolwork.	(1)	(2)	(3)	(4)	(5)	(6)
109. I am confident about my ability to set my own priorities with my personal life.	(1)	(2)	(3)	(4)	(5)	(6)
110. When I make a decision, I spend a lot of time weighing options.	(1)	(2)	(3)	(4)	(5)	(6)
111. I am unsure about my ability to make my own decisions about a future job.	(1)	(2)	(3)	(4)	(5)	(6)
112. I am unsure about my ability to make my own decisions about my personal life.	(1)	(2)	(3)	(4)	(5)	(6)
113. When I make decisions, they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opinions of my parents or other adults.	(1)	(2)	(3)	(4)	(5)	(6)

-
114. When I make (1) (2) (3) (4) (5) (6)
decisions, they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opinions of my friends.
115. When my parents or (1) (2) (3) (4) (5) (6)
friends disapprove of a
decision I am making, I
disregard their objections.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
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
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임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중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29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결정 관련요인 비교 분석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20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유성인쇄공사 전화 (02) 2265-554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2188-8844(사무국)

ISBN 89-7816-500-1(93330)

